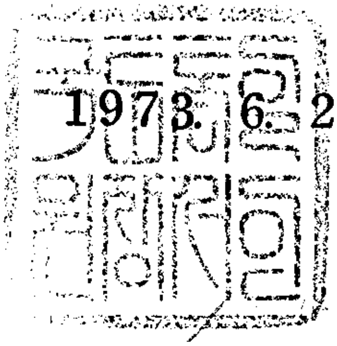
提　　出　　文

國土統一院 長官　貴下

이報告書를 「統一理念으로서의 韓國的民族主義에 관한 理論定立」의 最終報告書로제출합니다



1973. 6. 2

研究機關名: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研究責任者: 閔　丙　天

目 次

一. 民族主義에 대한 一般論 3

Ⅰ. 民族 및 民族主義의 概念 5

Ⅱ. 民族主義의 變遷過程 13

Ⅲ. 後進国民族主義의 展開 19

二. 共産主義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 31

Ⅰ. 맑스·엥겔스와 民族問題 33

Ⅱ. 레닌과 스탈린 37

Ⅲ. 現況의 檢討 46

展 望 52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의 歷史 61

Ⅰ. 統一国家形成 및 維持와 民族主義 63

Ⅱ. 解放後의 統一指向과 民族主義 68

四. 統一理念과 韓国的 民族主義 75

Ⅰ. 民族統一의 Aporia 77

Ⅱ. 統一理念의 定立 84

Ⅲ. 創造的 民族主義 90

Ⅳ. 民族의 哲学과 統一 97

五. 結 論 107

一. 民族主義에 대한 一般論

Ⅰ. 民族 및 民族主義의 概念

民族이나 民族主義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定義를 내린다는 것은 힘든 것으로써 그것은 時와 場에 따라 나타나는 形態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찍이 Hans Kohn도 民族은 歷史의 生動하는 힘의 所産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變動하는 것이지 결코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가장 착잡한 性格을 지니는 集団이므로 正確한 定義를 내리기란 거의 不可能하다고 論述하고 있는 것과 같이[1] 正確히 定義하기란 곤란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에 대한 概念規定은 諸学問 사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学者들 사이에도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같은 硏究의 困難性은 첫째 民族 또는 民族主義를 다루는 言語의 多様性과 그 애매성에 유래하는 것이며, 둘째 民族 또는 民族主義가 끊임없이 變動하는 歷史的 過程의 흐름에 속해있는 어떤 動的現象이라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그러나 多極化된 国際社会속에서 民族의 절실한 要求인 祖国近代化와 民族統一의 課題를 自主意志로 実現해야 하는 責務를 負荷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緊要한 主題로써 거듭 論究하여 概念定立을 서둘러야 할 時期에 処해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民族主義를 論함에 있어 民族(Nation)과의 関係가 대두된다. 民族에 대한 概念規定은 民族의 本質을 基礎로 하여 그 統一形成을 서두르기 위한 多様化의 克服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Nation이란 用語의 語源은 羅典語에서 비롯된 것으로

註1) cf. Hans Kohn, Nationalism : Its Meaning and History, 1960.

註2) 李克燦, 非西歐的 民族主義의 進路, 創造, 通巻, 第26号, 第8号 (1972.8月号), P. 47.

race (種族) 이나 birth (血統) 에 해당되는 種族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으나 近來에 와서 People (人民), Volk (国民) Nationality (民族性) 이라는 意味로 拡大, 使用되고 있다.

이와같은 民族의 本質을 파악함에 있어 그 前提가 되는 概念規定은 主観的인 側面과 客観的인 側面으로 区分하여 求할 수 있는 것이다.

民族의 本質的要素로서 精神, 感情,意識,意志등의 心理的 契機라고 보는 것으로 民族感情 또는 民族意識의 観点에서 보는 主観説과 歴史的 事実을 中心으로 共同血縁, 共同言語, 共同文化 나아가 政治, 経済, 生活등의 共同体로서 民族을 説明하고자 하는 客観説을 主張하고 있듯이 오늘날 民族에 対한 定義는 区区하다.

레너 (Rener), 짐멜 (Simmel) 은 民族의 本質은 主観的 感情에 依하여 形成되며 이 感情은 家族的 感情, 계급적 감정, 党派的 감정, 社会的 감정, 그리고 民族的 감정으로 発展하여 民族意識을 굳혀 民族結合의 強化剤가 된다는 経験的 見解를 피력하며 [3] 마이네케 (Meinecke), 팔켄버그 (Falckenbery) 와 헤겔 (Hegel) 등은 形而上学的 民族精神을 내세워 民族이 最高共同社会라는 前提下에 民族理念이 拘束力을 가지며 民族文化를 創造하는 母体로 伝統化, 生活化된다는 見解이고 [4] 라자루스 (Lazarus), 뤼멜린 (Rümelin) 등은 経験的 見解와 形而上学的 見解를 절충한 折衷的 見解를 나타내고 있다. [5]

註3) Renner, Der kampf der Osterreichischen National ltäten um den Staat, 1902
Simmel, Soziologic.

註4) Meinecke, Weltbürger Und Nationalstaat.
Falckenbery, Die Realität des objektiven Geistes bei Hegel, 1916.
Hegel, Philosphie der Geschichte.

註5) Lazarus, Das Leben der Seele, 1876,
Rumelin, kanlerreden, 1907.

反面에 客観説의 立場을 취하는 見解중에서 마우렌부레허 (Maurenbreche), 스테픈 (G.Staffen), 미체르릿히 (W.Mitscherlich) 스판 (Spann) 등은 血縁共同体説,[6] 피히테 (Fichte), 바이스겔버 (L.Weisgerber)와 프라이어 (Hans Freyer)는 民族形成의 要因이 言語의 統一에 있다고 보며,[7] 文化共同体説을 主張하는 피어칸트 (A.Vierkandt), 말리노브스키 (Malinowski)는 諸文化内容의 特定方向이 精神文化의 共通性을 成立시켜 民族共同社会를 形成한다고 보며,[8] 지글러 (H.O.Ziegler), 헤르즈(F.Hertz), 마키바 (R.M.Maclver), 맥도갈 (W.Macdougal) 등은 地域共同이 民族結合의 役割을 하며 이로 因하여 政治経済의 共同体를 구성한다는 것이며,[9] 또한 바우어 (Otto Bauer)는 民族은 歷史的 運命共同体라고 定義한다.[10]

그러나 以上과 같은 事実만으로서는 한 民族과 한 民族을 区別하는 基準으로서는 不足한 것으로 民族이란 絶対的 区分을 하기란 不可能한 것이며, 概念 또한 地域, 種族, 言語, 風習, 政治, 文化, 経

註6) Maurenbrecher,Staatrecht,1848.
Gustaf steffen,Der Weg zur Sozialen Erkenntnis
Waldormar Mitscherlich,Volk Und Nation,Handwortenbuch der Sojiologie,herausgegeben von Vierkantlt.
Span,Gesellschaftslehre,1923

註7) F.Fichte,Reden an die deutsche Nation.

註8) Malinowshi,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War,Americam Journal of Sociology. Jun.1941.

註9) F.Hertz,"Wesen und Werden der Mation"in Nation und Nationalitut,1927.

註10) Otto Bauer,Die Nationalitateufrange und die Sozialdemokratie.

済, 歴史的 運命등의 共通性이라 客観的 見解나 이들 事実에 입각한 主観的 立場 중에서 어느하나 両者択一로 説明되지는 않는다. 民族이란 血縁, 地縁과 같은 自然的 共通性의 基礎위에 言語, 伝統, 風習, 宗教 따위의 文化的 共通性을 계기로 하는 運命共同体로서 歴史的으로 形成된 것이며 그 결과 특정한 民族意識, 民族性, 民族精神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人類의 歴史的 集団이라 規定지울 수 있는 것으로[11] 端的으로 말하여 客観的 要素와 主観的 要素가 調和를 이룬 가운데 個性的 自覚을 가진 하나의 歴史的 集団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民族을 基礎로 한 民族主義란 用語 역시 그 内包하고 있는 意味가 明確하지 못하고 多様한 것이다. 또한 西欧에서 使用되는 소위내쇼날리즘 (Nationalism)의 意味와 그 内容과도 상당한 差異가 있다.

내쇼날리즘은 民族主義, 国民主義, 国家主義 등의 意味를 内包하는 多元的인 것이지만 民族主義의 真正한 意味는 国民主義 혹은 国家主義의 意味・内容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한스・콘 (Hans Kohn)은 民族主義란 하나의 精神状態로, 民族의 대다수에 침투하고 全成員에게 침투할 것을 要求하는 精神状態라고 하였으며[12] 民族主義는 民族国家를 政治組織의 이상적인 形態로 간주하고 民族을 모든 創造的인 文化活動과 経済的福祉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 各個人의 最高의 忠誠은 그가 속해있는 民族에 귀속되고 各個人의 생활 또는 民族에 根原을 두고, 民族의 福祉로서 可能하다는 것이다.

註 11) 俞光霦, 民族과 民族主義序說, 東国政治 第六輯, 東国大学校 政治外交学会 1972.p.15.

註 12) cf.Hans kohn,The Age of Nationalism,Harper,N.Y,1962

쉐퍼(Boyd C.Shafer)에 의하면 民族主義를 ①공통된 鄕土, 種族, 言語 또는 歷史的 文化에 대한 사랑, ②民族의 政治的 独立과 安定, 그리고 国威宣揚에 대한 욕망, ③民族이라는 막연한 때로는 超自然的인 사회적 有機体에 대한 신비로운 献身, ④国家 自体를 目的視함과 아울러 個人은 오직 国家만을 위하여 存在한다는 独断 ⑤自己 나라는 世界에 으뜸가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해야 하며 이 目的을 위하여 공격적 行動을 取해야 한다는 등 民族主義의 要素로서 5가지를 들고 있다.[13]

그러나 이들 모두 民族主義의 一面을 말하는 것으로 個別的으로는 不充分하다는 것이며, 民族主義란 真正한 또는 꾸며낸 共通의 歷史的 経験을 가지고 将来도 別個의 集団으로서 共同生活을 계속해 나가려는 공통된 욕구를 가지는 集団을 결합시키는 감정이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

모든것을 종합하여 볼때 民族主義란 民族이라고 스스로 자각한 民族集団에서 나타난 民族的 伝統, 民族的 利益, 民族的 使命을 강조한 조직적 行動原理 및 이데올로기라 하겠다.

이와같이 民族을 過去와 결부시켜 民族的 伝統, 現在와 결부시키는 民族的 利益, 未来와 결부시키는 民族的 使命 등이 民族主義 理念의 구성 契機라 보았을때 民族主義에 대한 이들의 구조와 기능이란 側面에서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民族主義에 있어 民族的 伝統의 강조는 「一体化의 象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民族的 文化의 보존과 신장, 民族的 긍지의 앙양 民族的 영웅, 위인의 찬양, 民族的 発明 내지 예술품에 대한 존경

註13) Boyd E. Shafer Nationalism Myth and Realit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55, pp.7~8.

심의 환기 나아가서는 国慶日, 紀念碑, 彫像, 神話등으로 나타난다.[14]

이러한 伝統의 강조는 民族主義의 담당세력의 性格에 따라 보수적 침략적으로도 될 수 있고 進步的 平和的 또는 구속적 전체주의적으로 될 수도 있으며 自由的 民主主義的으로 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伝統의 강조가 지니는 政治的 의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一般的으로 보수세력이 民族主義를 담당할 때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伝統이 民族의 神話的 起源에까지 소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며 이 때에는 使命觀念과 결부되어 超国家主義의 양상을 띤다.

民族的 利益은 現実性과 観念性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어느 면이 顕在化하느냐에 따라 民族主義는 크게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民族主義가 植民地에서 独立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거나 그것이 上昇的인 계급에 의해 추진되어 被支配階級도 부분적이나마 利益의 分配를 받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民族的 利益이란 観念은 現実性을 띄어 광범한 국민층에 뿌리를 박게 된다. 反面에 独立을 쟁취한 후나 体制가 下降期에 들어서면 지배층이 내거는 民族的 利益은 観念化하고 階級的 利益이 現実化되기 쉽다.

그리하여 現実的 기반을 상실하게 되면 民族的 利益이란 観念은 虚偽意識으로 화하여 社会的 모순을 은폐하고 계급적 충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인 役割이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民族主義에는 국내의 階級的秩序를 수평화하는 경향과 反対로 그러한 계층을 고정화하는 경향이 함께 내포되고 있으므로 그중 어느 경향이 優勢하게 되는가는 民族的 利益이란 観念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달려 있다.

註 14) 車基壁, 戦後 民族主義의 方向, 思想界, 通巻 129 号 (1963.12 号), PP.65-66.

民族의 未来와 결부시킨 民族的 使命의 강조는 한 民族의 世界에 있어서의 存在이유와 장래의 行動目標를 단적으로 제시하여 自国民을 정신적으로 고무하고 또는 잠재적 내지 顯在的인 敵国民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또한 民族主義의 国際主義에로의 전화와 国際政治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戦의 확대는 民族的 使命感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여 데마고그化의 경향도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民族主義 理念의 구성 契機라 본 民族的 伝統, 民族的 利益, 民族的 使命에 대한 構造와 機能에서도 나타났듯이 民族主義에는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両面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라든가 共産主義라면 그 理念과 制度가 있는 것이나 民族主義는 일정한 独立的인 理念과 制度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나 독재주의와도 結付될 수 있으며 経済的으로는 資本主義와도 社会主義와도 結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民族主義는 어떠한 形態의 이데올로기와 政治権力과도 結付되어 展開될 可能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民主主義的인 進步的 民族主義化하기 위하여는 合理性과 自由가 民族主義의 最小限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15] 民族主義가 어떠한 様相으로 나타나든간에 普遍的 合理性과 自由가 民族主義로 因하여 상실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現今의 民族主義는 国内에서 社会的 거리를 제거하여 民族의 단합과 結束을 굳게하려는 「団結的 民族主義」(Cohesive Nationalism)와 国際間의 社会的 거리를 제거하여 民族의 威信을 높임으로써 国際社会에서 평등한 地位를 차지하려는 競争的 民族主義

註 15) 閔錫泓, 民族主義의 理念, 思想界, 通巻 156 号 附録(1966.2) P.38.

(Competitive Nationalism)[16] 등을 모두 추구하는 方向으로 展開시켜나가야 되며 특히 韓国的 現実에 있어 民族統一의 理念으로써 만이 아니라 国家의 近代的 発展을 위하여 国民의 분발을 촉구하고 国民의 정력을 統合하는 하나의 길이라 하겠다.

註 16). 車基壁, 転機를 맞은 韓国民族主義, 知性, 創刊号 (1971, 11 月号), P. 58.

II. 民族主義의 変遷過程

民族主義는 그의 起源을 原始 種族主義에 까지 소급하여 찾아볼 수 있겠으나 民族主義가 歷史発展에 관여하고 歷史의 形成力으로 作用하게 된 것은 近代에 이르러서이다.

물론 民族意識이 싹트고 그것이 国家形成의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것은 中世末의 일로서 中世의 普遍的 理念과 지방 할거주의를 타파하고 中央集權的인 統一国家는 形成되었으나 이는 루이 14 세의 「朕은 国家다」는 말이 단적으로 表現하듯이 民族国家 내지 国民国家는 아닌 것으로서 National state가 아닌 Kings state 였다.

近代 내쇼날리즘 形成過程에 실천적 형태를 提供한 것은 1789 年의 프랑스 革命때 부터이다.[17] 中世末이래 成長을 계속한 民族意識이 프랑스 革命을 계기로 自発的으로 国民(民族)国家를 形成하고 이에 따라 民族主義도 나타났다. 이러한 国民国家의 成立은 特權과 身分制의 타파와 동시에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特權階級을 降等시키는 동시에 人民主權의 原理에 입각하여 国民大衆을 上昇시키고 国政과 国家利益에 참여시킴으로써 意識的인 동시에 自発的인 全国民의 견고한 団合이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한 国民国家의 탄생을 보게된 것이다.

「自由, 平等, 博愛」란 三色旗下의 프랑스 革命에서 탄생한 民族主義는 民主主義, 人道主義와 結合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東欧쪽으로 전파되어 감에 따라 차차 變形이 나오게 되었다. 뿐더러 Napoleon의 유럽 征服은 各民族을 강하게 刺戟시켜 유럽의 諸民族은

註17) A.Report on "Nationalism" by a study group of member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1939,PP.37~39.

民族的 自覚을 가지고 民族国家 樹立을 염원하게된 것으로 「E.H. 카아」가 民族主義와 그 以後에서 分析한 바에 依하면 民族主義의 発展의 第2段階에 속하는 시기라[18] 라 볼 수 있다.

당시의 民族主義는 市民的인 自由와 平等 그리고 異国의 専制政治에서, 더우기 土着의 専制政治에서 解放된 모든 民族들의 市民的인 統一로 指向하고 있었다.

民衆 (le peuple) 을 불러 일으켜 国家的인 동시에 世界 市民的으로 시작된 프랑스 革命과 「나포레옹」의 센트, 헤레나 回想録에서 그의 意図를 하나로 서술했고 또한 그것으로써 자신의 政治를 변호하려고 시도했던 자유로운 유럽에 대한 解釈은 광범한 영향을 미쳤으며 独逸에서도 상당한 범위로 영향을 끼쳤다.

그 時代의 民族主義者들은 적어도 理論的인 面에서,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인 면에서 협소한 同情에 얽매여 있었다. 그들은 相異한 戦線에서 連帯的으로 투쟁하였으며 民族主義는 専統的 支配形成과 社会秩序를 와해시키려고 위협했던 것이며 根本的으로 国際的이고 革命的이며 그리고 自由를 위한 運動이었다.

대체로 19世紀의 民族主義 運動은 세가지 形態로 区分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첫째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政治的 분열을 지양하고 国民的 統一을 達成하려는 形態, 둘째 포르투갈과 특히 스페인의 植民地였던 中南美의 独立運動의 形態, 세째 합스부르크 帝国内의 少数民族 (항가리 등) 과 回教国家인 터어키 帝国内의 基督教民族 (희랍等) 등의 解放과 独立을 指向하는 運動 등으로 나타났다.

註18) Cf. Edward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N.Y. St. Martin's Press, Inc. 1945, P.2.

그러나 中南美의 植民地 独立運動은 얼핏보아 亜·阿의 民族主義와 비슷한듯 보이나 同一한 것은 아니며 中欧나 東欧의 少數民族의 解放独立 運動은 헤이즈(C.J.H.Hayes)가 말하는 文化的民族主義가 政治的民族主義로 전환하는 過程을 밟은 것이다.[19]

反面에 独逸과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는 위의 두 民族主義 形態와는 달리 政治的 分裂을 止揚하고 国民的 統一을 成就하려는 점에서는 独逸과 이탈리아의 民族主義가 동일하나 그것은 外形뿐이고 内容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다.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는 18世紀의 啓蒙思想과 프랑스 革命理念을 어느정도 계승하여 自由主義와 人道主義와 人道主義的인 普遍主義의 要素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世紀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를 代表한 사람은 마치니(Mazzini)로서 그는 民族의 統一이나 独立을 個人의 自由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조국과 自由는 다같이 귀중한 것이고 不可分의 것으로 結合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思想이 支配的이었다.

이와같은 뜻을 지닌 마치니에 의하여 統一되지 않았으나 統一을 이룩한 카브르(Cavour) 역시 自由主義와 立憲政治의 信奉者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諸여건이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를 自由主義的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独逸의 民族主義는 헤르더(Herder)의 文化的 民族主義와 浪漫主義에서 탄생한 것으로 啓蒙思想과 프랑스 革命 理念에 반발 또는 否定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民族的 伝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独自的인 Volk (民族)의 形成과 이의 原動力으

註 19) Cartton J.H.Hayes.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N.Y.MacMillan,1960.

로 신비스러운 民族精神 (Volk geist) 을 내세웠다.

그러므로서 他民族의 独自性이나 特異性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닌 独逸民族만의 独自性, 特異性을 강조하여 구체적으로 프랑스 革命理念의 否定, 自由主義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프러시아主義 (Prussianism) 즉 権威主義와 軍国主義가 첨가됨으로서 英·仏과는 다른 独自的인 独逸의 民族主義가 形成된 것이다.[20)]

이와같이 1871 年代까지는 英国과 프랑스를 中心으로 한 이탈리아 등지에서 일어난 西欧的 民族主義 理念과 独逸을 中心으로한 東欧的인 것으로써 두개의 서로 相違한 民族主義의 理念이 나타났다. 西欧的인 民族主義는 대체로 自由主義와 民主主義를 基盤으로 한 開放的이고 共存的인데 反하여 東欧的인 民族主義는 全体主義的이고 신비롭고 閉鎖的인 동시에 배타적이다.

1870 年代 이후의 유럽의 民族主義는 이러한 두개의 対立的인 理念을 내포한채 産業革命의 결과와 합세하여 帝国主義化 되었다.

産業革命 以後 漸進하기 始作한 資本主義는 1870 年頃에 이르러 난숙 (Over-ripe) 期에 들어서므로서 資本主義는 極度로 発展하게 되어 国内市場에서의 有効需要 (Effective demand) 의 不足으로 因하여 海外植民地를 競争的으로 획득하게 되어, 이들 諸 植民地에 資本을 投資함으로서 唯一한 活路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拡大伸張의 過程을 수반하여 이른바 침략적 帝国主義的 民族主義로 発展하여 政治的 国民統一에의 要求를 対外的 膨脹主義로 発展하게 되었다.

여기서 홉슨 (J.A.Hobson) 이 말한 民族主義의 「타락 (debas-

註20) 閔錫弘, 前掲文, P P 33 - 35 참조

ement) 과 悪用 (Perversion) 이 일어났다.[21]

그러므로써 맞이한 第一次 世界大戦은 最初의 가장 巨大한 諸民族主義 (独占 資本主義的 帝国主義的 性格을 帯有한) 間의 抗争의 産物이 었다.[22] 第一次 大戦은 汎게르만主義 (Pan-Germanism) 즉 帝国主義的 膨脹主義的 民族主義와 汎 슬라브主義 (Pan-Slavism) 인 露西亜의 帝国主義的 膨脹主義的 民族主義의 対立 抗争과 独・仏民族対立, 및 오스트리아, 셀비아 間의 国民的 仇敵関係가 原因인 것으로 膨脹民族主義諸国의 決戦이 었다.

이러한 第一次 世界大戦은 民族自決主義와 国際協調란 두개의 対立的인 原則을 戦後問題처리와 世界平和의 原理로 내세웠다.

民族自決主義로 말미암아 유럽의 수많은 少数民族이 独立하게되어 오스트리아, 터어키, 러시아 等 帝国이 무너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民族主義運動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 帝国主義 내지 植民地主義로부터의 解放運動이 크게 促進되었으며 이 戦争은 民族主義를 지구상 도처에다 확산시켰을 뿐더러 民族主義는 普遍的 현상이 되었으며 「무스다파・케말」「간디」「孫文」등이 近代의 위대한 民族指導者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反面에 이에 편승하여 共産主義는 反帝国主義와 反植民主義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対 資本主義의 戦述에 民族主義를 이용하였다.

一次大戦後의 民族自決主義나 위와같은 諸 추세는 如何튼 以前에 비하여 매우 많은 独立国家를 낳게 하였으며 그것은 한없이 増加할 기세를 보였다.

註21) J.A.Hobson.Astudy of Imperialism.N.Y.MacMillan.1933.PP.4~9.

註22) E.H.Carr.The TWenty year's Crisis london MacMillan & Co Ltd.1956.Cf.Part.2. Inernational Crisis.

그러나 独逸의 「히틀러」가 나치즘 独裁体制 強化에 民族主義를 手段化하는[23] 等 独逸, 이탈리아, 日本등 몇몇国家에서 나치즘 내지 파시즘으로 알려진 膨脹主義的 民族主義가 또다시 일어나 民族主義가 軍国主義, 침략주의로 나타나 이와같은 극단적인 民族主義는 2次次世界大戦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므로써 19世紀初에는 선량한 人間과 선량한 市民의 「自然스러운」 態度이고, 民族国家는 歴史発展을 충만시키며 成就시키는 것이 民族主義라 믿던것이 19世紀 후반의 権力政治 및 現実政治史에 의하여 부정되고 낡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国際情勢속에서 民族主義는 오늘날 人類의 収斂뿐만아니라 그들의 多様性을 可能케하고, 人類를 테크노크라시 (technocracy)에 의해서 조종되는 단일형식의 世界国家라는 위험으로부터 보장하는 方向으로 規定하는것 같이 보인다.[24]고 하나 民族主義가 초래하는 相争的인 경향을 지양하고 国際協調의 정신에 입각하여 世界平和를 達成할 수 있는 合理的인 방도를 찾는 것으로서 民族主義와 国際主義의 調和의 問題가 現代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世界史의 志向으로서 이른바 네오·내쇼날리즘 (Neo Nationalism)의 潮流가 일기 始作한지 모른다.

註23) 河璟根. 아프리카 政治論. 一潮閣. 1972. P.30

註24) Cf.Hans Kohn.Begriffswandel des Nationalismus.Mer Kur.198 巻

Ⅲ. 後進国民族主義의 展開

後進国(또는 植民地)民族主義는 西欧의. 強大帝国主義에 対한 反対라는 形態로서 즉 反植民地主義라는 形態로 始作된 것으로서 17世紀 以来의 이른바 植民地帝国主義(Colonial impercolism)에 依하여 隷属되었던 後進地域의 植民地民族이 自主独立과 国際的인 主権의 平等을 達成하고 植民母国으로 부터 政治的, 経済的, 社会的 및 文化的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스스로를 解放하려는 民族運動인 것이다.

이러한 後進国民族主義 運動의 根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外部的 要因으로서 1905年 露日戰爭에서 有色人種인 日本이 승리했다는 점, 1911年 孫文의 辛亥革命으로 因한 華僑民族主義, 1917年 러시아 革命과 民族解放戰術, 1918年 「윌슨」의 民族自決主義 및 両次大戰에서 帝国主義의 모순늘이 民族主義成長을 促進하여 偉大한 覚醒을 하기 始作한 点을 들 수 있다.[25)]

그러나 「윌슨」의 이른바 14個条(President Wilson's Fourteen Points)[26)]에서의 民族自決主義는 유럽의 少数民族에만 適用되었을뿐 亜·阿의 植民地에서 적용은 거부되었으며, 1917年 10月 러시아의 프로레타리아革命으로 부터의 1920年 7月 콤민테른(Comintern)에서 「民族 및 植民地 問題에 関한 테에제」[27)]는 前述한 바와같이 植民地民族主義 運動을 프로레타리아 世界革命의 手段으로 使用하였다는 点을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

註25) 俞光霆, 前揭文. P. 20

註26) D.C. Somervell.Modern Britain.London.1941 Appendix.1.PP.197-199

註27) N.Lenin. 「民族問題」 村井繁訳.第三分冊. PP215.-231

둘째로는 인텔리겐챠가 形成됨으로 民族意識을 고취시키며, 伝統的인 価値観의 修正 및 運動形態가 大衆化된 形態로서 精神, 文化的要因을 들수 있으며, 세째, 経済的, 社会的, 要因으로서 부케(J.H.Bo-eke)가 말하는 二重社会(dual Society), 퍼니벌(J.S.Furnival)의 複合社会(Plural Society)[28]를 만들어 経済的 隷属機関으로 化하여 原住民의 経済, 社会的인 諸 秩序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므로서 支配로부터의 自由, 貧困으로 부터의 解放을 부르짖고 이의 打開를 위한 民族資本의 育成을 要請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民族主義運動을 場을 中心으로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諸 民族主義는 각기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西欧勢力에 依하여 土着原住民의 社会가 崩壊되었으므로 이곳의 民族主義는 亜.阿地域과 다를뿐 아니라, 19世紀末에 諸 国家의 独立解放運動은 주로 植民地에 移住한 西欧人의 独立国家 건설운동이었으며, 亜, 阿는 被圧迫民族의 해방투쟁으로서 植民地 民族主義 運動이다.

一面 아시아.아프리카의 民族主義는 다같이 植民地 民族主義라는 共通点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原始的인 샤마니즘과, 東南亜의 仏教, 힌두教的 文化와 回教的 文化圏의 社会에서는 国家와 社会에 対한 観念上의 差異가 明白히 存在하는 것으로서 東南亜는 均質的인 民族集団의 緊密性으로 民族統一에의 욕구가 特色이고, 아프리카의 部族社会는 部族的 単位의 存全을 渴求하는 反面 全阿의 統合이라는 大命題가 存在하고 아랍世界는 宗教의 単一性, 民族의 相当

註28) J.H.Boeke.Economic and Economic Policy of Dual Societies as Exemplified by Indonesia.N.Y.1953.P.324.

J.S.Furnivall.Colonial Policy and Practice.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 India,London Cambridge Univ.Press,1948. P.304.

한 接近性으로 統合運動이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29]

西欧의 民族主義는 資本主義의 発達과 더불어 民族国家가 形成・発展하였으나 亜・阿에 있어서는 西欧資本主義 즉 帝国主義가 植民地 또는 反植民地에 남긴 遺産을 清産하기 위한 것으로,「스쟈히르」(S.Sjahrir)가 民族主義를「植民地時代에 存在한 封建的 社会関係 및 植民地専制支配의 모든 条件을 否定하는것」을 特徵으로 들고 있듯이, 대체로 後進国 民族主義는 反封建主義, 反植民主義, 反帝国主義의 性格을 띠우게 되었다.

이와같은 것을 共産主義와 同一한 概念으로 파악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共産主義는 階級社会主義로서 民族主義와는 相異한 것이며, 또한 国際共産主義는 労動者階級의 解放을 世界的인 規模로 이룩하자는 것으로서, 植民地民族의 解放을 達成하려는 植民地民族主義와는 그 性質을 달리 하는 것이다.

一面 後進国民族主義는 그 變遷에 있어 「亜・阿」의 植民地 地帯 後進国들이 그 自由性을 確立하고 植民地的 後進性을 克服하기 위하여 資本帝国主義에 対抗할 뿐아니라 共産帝国主義에 対抗할 새로운 指導理念을 창안하여 独自的인 노선을 걷지 않으면 안되어 이른바 「非同盟中立主義」란 것을 国際政治上에 표명했던 것이다.[30]

이러한 後進国民族主義의 課題는 앞서 民族主義의 概念에서 前述한 바와같이 国内, 国際양면에서 社会的 거리를 제거하므로서 対外的으로는 国際的 威信과 平等한 地位를 차지하는 것과 対内的으로는 民族을 団合시켜 近代化를 촉진하여 経済的自立을 이룩하는 것

註29) 李鍾麟・後進国民族主義의 成長過程・東国政治 第六輯・1972, P.31

註30) 非同盟中立主義의 提昌은 印度의네루(Pandit Jawaharlal Nehru) 로서 아랍共和国의 낫셀(Gamel Abdul Nasser) 열열한 同調者로 登場하였으며 亜阿新生国의 主流的인 国際政治의 方向이 되었다.

으로서, 後進国 民族主義의 歴史的 使命이 文化的民族主義에서 政治的民族主義로 発展하여 植民地에서 独立을 쟁취한 후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経済的民族主義로 発展하게 되는 것이다.

経済的 自立없이는 政治的 独立은 기실 무의미 한 것으로서 経済的 自立을 하기 위하여서는 国民的 統一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後進国 民族主義는 社会構造의 二重性과 複合社会 (Plural Society)的 양상을 지양하기 위한 社会改革을 통해 社会正義를 세움으로서 民族的 一体感을 調成하지 않고는 効果的인 自立経済確立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막중한 課題를 지닌 後進国民族主義는 西欧 帝国主義的植民地民族主義의 衝撃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나, 아세아, 아프리카라는 독특한 時와 場에 따라 각기 特性을 지니고 있는것 이므로 이를 考察의 편의상 아세아 民族主義와 아프리카 民族主義로 区分하여 論하고자 한다.

가. 亜細亜 民族主義

近代的 意味의 亜細亜 民族主義는 西欧植民主義 (Colonialism) 로 부터의 解放 및 独立運動으로 시작된 것으로, 「亜細亜 民族主義와 共産主義」에서 맥마혼·볼 (Macmahon Ball) 은 그 첫머리에 Asia를 움직이는 民族主義의 革命的 에네르기를 세가지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첫째 民族自決과 民族独立을 要求하는 것으로 外国의 政治的 支配, 植民主義와 帝国主義에 対한 反抗, 둘째 貧富의 현격한 격차에 대한 平準化의 要求인 社会的, 経済的, 抵抗運動이며 세째 西洋에 対한 東洋의 反抗으로서, 人種的 反抗運動등으로[31] 亜細亜의 運命은

註 31) MacMahon Ball.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 Mellnurne Univ. Press. 1951. P.1

아시아 사람손으로 決定되어야 하며 東洋의 새로운 国家가 탄생하는 것은 그 自体가 目的이지 西洋의 目的을 위하여 사용될 手段이 아니라는 결의를 뜻하는 것이다.

이상의 所論은 亜細亜 民族主義 性格을 一般的으로 잘 표현하고 있으나 東洋社会에서도 外国을 支配한 日本이 存在하고 있는 事実과 또한 위의 세가지 重合 交錯로만 보는 것은 問題의 所在를 平面的으로 指摘할 뿐이어서 不充分한 것으로 各己 이를 推進시킨 階級層의 究明을 不充分히 하고 있을뿐 아니라 東洋의 民族運動의 推進力을 담당하는 계급층의 如何를 分析하여 民族主義의 특질을 밝혀야 비로소 内面的으로 理解할 수 있다[32]는데 問題点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세아의 社会는 伝統的으로 閉鎖的인 地縁, 血緣을 強調하는 基盤을 지닌 위에 전술한 부케(Bucke)의 二重社会, 퍼니벌(J.S. Furnivall)의 이른바 複合社会가 植民地化 過程에서 나타났다.

비단 社会構造 뿐만아니라 文化構造나 経済構造 및 住民의 階層構造도 複合的이고 多元的인 形態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民族主義 運動도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아 民族主義는 건전한 市民階級이 発達되지 못하여 이들이 主体的 役割을 수행하지 못하고 先進西欧勢力과 東洋封建支配勢力과 結付된 植民地化 過程에서 새로운 인텔리겐차가 形成되어 이들을 主体로 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들 인텔리겐챠는 健全한 民族主義形成에 주도적 役割을 하여야 되며 하여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칼·만하임」이 말한 바와같이 社会内에 自由로히 浮動하

註 32) 崔文煥. 民族主義의 展開過程, 博英社, 1959, P. 462

고 있는 인텔리겐챠는 特定한 階層意識에 從屬되지 아니하고 対立되고 있는 여러 이데올로기를 統合하여 民族運動의 主役을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서 社会의 思想体系와 民衆을 올바르게 유도해나가 조국 発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民族主義를 鼓吹하여야 된다.

또한 아세아 民族主義는 특히 東南亜는 種族的, 地域的, 宗教的, 階層的 対立 및 国際政治勢力간의 対立으로 因하여 또다른 多元的이고 複合的인 特殊性을 갖고 있다.

印度와 파키스탄에서 宗教的 対立이나, 버어마의 카렌族의 独立運動에서 種族的 対立을 보았고, 種族的, 地域的 対立에서 起因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反乱 및 国際政治上으로는 네루의 非同盟中立主義 提唱등의 多·複合的인 特殊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多元性은 이미 第二次大戦 이전에 그 特性이 規定되었으며, 戦前의 共通的인 特徴은 各植民地勢力의 支配 政策에 依하여 決定되었다.

英·美의 支配하에 있던 印度, 버어마 필리핀의 植民政策은 비교적 被政治支配層으로 하여금 政治, 経済, 社会的 行為의 自発性과 自由를 느낄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民族運動은 柔軟하고 妥協的인 性格을 띠게 되었다. 反面에 프랑스, 和蘭에 의한 印尼, 印度支那에 있어서의 植民政策은 日本이 韓国 満州, 中国에서 行한 것과 같은 同化政策을 本質로 하였기 때문에 民族主義 運動은 政治的 対抗感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世界二次大戦으로 말미암아 戦後의 民族主義는 새로운 局面으로 展開되어 나갔으며, 많은 国家들이 植民地에서 独立되었거나 植民勢力의 支配가 弱化되었으며 一面 아세아 民族主義 運動은 国際政治上에 새로운 要素를 첨가시켰다.

現分에 있어 亜細亜民族主義가 植民地支配로 부터 完全히 独立을 争取 — 最少한 外形的으로는 — 한以上 政治的, 経済的, 社会的, 文化的 統一과 自由와 平等을 国内·外的으로 성취하여야 되나, 이와같은 것을 達成하기에는 많은 問題点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諸問題는 政治的 民族的 統一国家의 形成과 経済的 平等, 政治的 自由등을 段階的으로가 아닌 同時에 遂行하여야 된다는데 問題가 있을뿐 아니라 外的要因으로서 亜細亜 民族主義는 植民地民族主義로 그 基本的 要求는 民族의 政治的 独立과 国際社会에 있어서의 平等權의 主張인 것으로서[33] 이는 民族의 基本権인 것이다. 그러나 所謂 列強이 이를 認定치 않으려는데서 諸問題가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亜細亜 民族主義는 본래 内部的 発展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나 이 可能性이 如何한 方向, 様態, 速度로 発展하느냐의 問題는 現実에 있어 外部的인 国際関係의 變化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亜細亜自体로서 보다도 世界의 一環으로써, 自主的 主体的이 아닌, 国際関係의 變化와 反応으로 부터 초연할 수 없는 것이 아세아 民族主義이며 後進国이 지니는 特性이라 하겠다.

나) 아프리카 民族主義

植民地 民族主義라는 共通点을 亜·阿 民族主義는 지니고 있으나,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形成과 그 性格은, 아세아 民族主義와는 社会的 文化的 基盤부터가 다른 것으로 아세아 民族主義는 西欧의 衝擊에 依하여 나타난 形態인데 反하여 아프리카 民族主義는 西欧의

註33) Gerbet.Les Organisations Internatinales, 1960.PP. 69-71

충격보다도 變革過程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形成 契機는 「G. 바란디에」(Georges Balandier) 가 지적한 土着人에 対한 유럽인의 優越한 権力関係에서 形成된 植民状態[34]나 「I. 제닝스」(Ivor Jennings) 가 지적한 輸入된 유럽人의 特権的 官僚制[35]가 土着社会에 정착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土着人의 政治的覚醒이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胎動을 가능케 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過程을 거쳐 政治的 独立을 획득하여 個別的인 主権国家로 成立되었기 때문에 伝統的인 価値体系가 本質的으로 변모하였다.

이와같은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形成契機를 把握함에 있어 経済的, 社会的, 宗教的, 心理的 要因등으로 区分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生存経済에서 貨幣経済에로 變動 (Change from a subsistence to a money economy) 과 賃金労動力에 成長 (growth of a wage-lobar force), 新中間階層의 生成 (rise of a new middle stratum) 등의 経済的 要因과 유럽人 企業에 雇傭되기 위하여 都市로 人口가 集中되므로 発生한 都市化 (Urbanization) 가 血縁関係를 弱化시키게 되었으며, 非部族的 人種集団間의 社会的 疎通을 促進시켜 民族的 統合 (national integration) 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社会的 動員 (social mobilyty) 은 意思疎通과 交通의 発達로 交換経済의 成長 및 政治·社会的 再結合을 마련한 것과 西欧의 教育에서 영향등을 社会的 要因으로 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宗教的 心理的 要因은 基督教 福音伝達, 西方教育의 欲求不

註 34) Geoiges Balandier, La Situation Coloniale Approache theorique Cahiers Internationaux de Sociologie XI 1951. PP. 44-79.

註 35) Ivor Jennings Approch to Self-government Corona. The Journal of Her Majesty's Oversea Seavies, Feb. 1956. P. 62

滿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36)]

위와같은 諸 形成 要因上으로 差異가 있듯이 亞細亞 民族主義는 초기부터 反西歐的, 反帝国主義的 性格을 지닌데 반하여 아프리카는 血緣的 部族的 紐帶와 緊迫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民族国家를 形成하도록 西歐勢力이 意識的으로 組織되었다.

비록 自生的으로 民族国家를 形成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19世紀末부터 아프리카의 民族運動은 組織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国家形成의 過程에서 民族과 国家가 同時에 創造되어야 하는 二重的 役割이 要求되고 있는 것으로서[37)]이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指導者들은 強力한 政治体制를 수립하여 部族主義를 止揚하면서 国家統合의 要素를 간격하고 있으나 아직도 결합의 정도가 不充分하고 内的 凝集力 내지 団結力이 未熟한 단계에 있으므로 部族線 (tribal line)에 따른 亀裂이 잠재해 있다고 하겠다.[38)]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 民族主義는 国家建設의 過程에서 한편에서는 汎아프리카主義를 내세워 個別的 확립과 部族主義 내지 国内的 沮害要素를 克服하려는 合目的政策,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는가 하면, 資本主義와 共産主義에 対한 理念的 代替物의 役割을 遂行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아프리카가 당면한 現実的, 歷史的 特殊事情에서

註36) 經濟的 要因은 L.P.Mair, 社会的要因은 J.P.Rheinalt Jones 宗教的 心理的要因은 William Bascon이 지적한것을 要約한 것이다.

註37) Louis L.Snyder, The New Nationalism.N.Y. Cornell Univ. Press. 1968.P.106

註38) Rupert Emerson, the Problem of Identity Selfhood and Image in the New Nations the Situation in Africa. A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1968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1968.P.5

「콜만」(James Coleman)은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発展 段階를 다음과 같이 区分하고 있다.[39)]

①伝統主義運動(Traditionalist movement)으로 이는 原始的 底抗運動(Primary resistance)과 原住民 保護運動(nativitic movement)을 들수 있는 것으로 즉 植民地 支配者의 強制와 새로운 制度에 対한 무조건 底抗과 呪術的 宗教的 性質을 지닌 것으로 外国 支配에서온 社会, 経済的 不平으로 야기되는 緊張의 心理的, 感情的인 배척 ②混合主義運動(Syncretistic movements)으로 宗教的 分権主義(religious separatism)와 血縁的 社会組織(kinship association)및 部族的 社会組織(tribal association)의 段階로서 部族的, 血緣的 단결운동과 ③近代主義運動(modernist movement)으로 経済的 利益集団(economic interest group)이 中間階級의 形成과 民族主義運動(nationlist movement), 汎아프리카주의 運動으로 区分지우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民族主義 運動의 段階的 発展은 伝統主義 運動段階에서는 原住民의 自然的 反抗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混合主義運動은 西欧式 教育을 받은 知識層 또는 都市化된 사람들에 依해서 움직여지며 近代的 民族主義 運動은 西欧化 엘리트에 의해서 組織도 引導된다.[40)]

後進国 一般에서 보는 바와같이 近代的 教育을 받아 새로이 形成된 인텔리겐차에 의하여 展開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民族主義 運動으로서 이러한 運動은 아프리카 国家形成에 있어 種

註 39) James S.Coleman, Nationalism in Tropical Africa,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XLVIII №2 (June 1954), PP.404-426

註 40) Paul E.Sigmund(ed), The Ideology of the Developing Nations Prager,1963 PP.9-10

族的, 地理的 또는 社会배경적 동일성에 따라 合理的인 선으로 재조정하는 방향과 現在의 状況을 그대로 인정하는 方向 및 아프리카 合衆国을 建設하는 方向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現実的으로는 現存 国家秩序에 順応된 組織化로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方向設定이 定立된 것이다.

이와같이 아프리카社会의 多様한 바탕에 基礎한 一種의 模糊性이 아프리카 民族主義의 現実的 性格이며, 또한 特徵이라 하겠다.[41]

註41) 河璟根, 前掲書, P.57

二. 共産主義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

[illegible]

I. 맑스·엥겔스와 民族問題

共産主義의 理論과 実際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가 어떠한 것인가는 알려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統一의 努力에 있어서 民族이라는 点을 強調해야 할 우리의 立場에서는 맑스 以来의 民族理論과 共産世界에 있어서의 実際를 다시 살펴 볼 必要가 있으며 民族이라는 点이 統一에의 接着剤가 될 수 있는지도 検討해볼 必要가 있다.

이러한 観点에서 以下에서는 맑스·엥겔스와 民族問題, 레닌과 스탈린, 現況의 検討, 展望등으로 나누어 特히 展望에 力点을 두면서 이 問題를 살펴 보려고 하는데 資料와 時間의 不足으로 因해서 独自的인 充分한 検討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点을 미리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主観으로 因한 過誤를 警戒하면서도 主観的인 見解로 끝날지도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一般的인 論議의 範囲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알 수 없는데 이 問題의 検討가 必要하다는 点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의 見解에 到達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맑스·엥겔스는 民族問題에 相当히 強한 関心을 가지고 있었으나 特別히 民族에 관해서 精緻한 理論을 展開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다. 그들은 民族性(Nationalitat)이라는 말을 国家나 国民과 거의 同義語로 使用하였고, Nation이라는 말도 「国民」과 「民族」을 明確히 区別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그中 어느것인지 明確하지 않다고 한다. 어쨌든 그들은 「民族性의 利己主義」를 批判하면서 国際主義를 主張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며, 그들의 民族問題에 관한 몇가지 主張을 본다면 맑스는 1847年의 폴랜드를 위한 演説에서 諸国民이 진실로 団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利害가 共通이어야 하고 그들의 利害가 共通이기 위해서는

現在의 所有関係가 廃止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 푸로레타리아의 브르죠아지에 대한 勝利는 同時에 全被圧迫民族解放의 信号이기도 하다고 하였으며, 엥겔스도 一民族은 他民族을 圧迫하면서 同時에 自由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見解는 1848年의 「共産党宣言」에서 「萬国의 푸롤레타리아요 団結하라」는 結語에 集約되고 있으며, 共産国際主義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国際主義가 그 後의 過程에서 그대로 維持되지 아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民族과 階級과의 関係를 原則的으로 表示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다. 「共産党宣言」에서는 또한 푸롤레타리아트는 무엇보다도 政治的 支配를 獲得해서 民族的인 階級의 地位에 올라가 스스로를 民族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点에서 브르죠아지가 말하는 것과는 完全히 다르나 그 自身 역시 民族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民族的인 階級」이란 民族의 主体로서의 階級을 意味하고, 「스스로를 民族으로 한다」는 것은 푸롤레타리아트를 主体로 해서 民族이 成立된다는 意味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푸롤레타리아트가 그때까지는 民族의 物質的, 精神的 財貨에서 除外되어 있는 地位 또는 民族内의 階級関係를 表示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겠고, 나아가서는 民族 그 自体에서 除外되어 있다고 誇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民族性의 否定이 아니라 止揚이라 하고 그 国際主義는 단순히 民族主義와 対立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民族主義를 止揚하는 것으로서 把握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解釈도 나오고 있다.[1] 그러나 民族主義의 「否定」과 「止揚」과의 差異는 모호하며, 이렇게 해서 共産国際主義와 民族主義가 対

註 1) 竹原 良文 編著 내셔널리즘의 政治学的研究 中 德本 正彦, 맑스·엥겔스와 民族問題, 1967年, PP. 71-73.

立하지 않는다는 解釈도 모호하다.

「共産党宣言」에 있어서의 国際主義의 立場은 그後의 맑스·엥겔스의 民族問題把握의 観点이 되어 있고 그들은 이것을 意識的으로 戦略·戦術로서 展開해 나갔으며 다만 具体的인 情勢下에서 戦術의 適用에 있어서는 柔軟한 理論活動을 展開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後의 共産主義理論에 있어서 부르조아民族主義와 푸롤레타리아 民族主義의 区別을 낳게 한 起源이 되고 있다. 이러한 区別은 그들의 階級闘争説과 마찬가지로 対立的, 分裂的인 要素를 内包하는 것으로서 한 階級에 대한 다른 階級의 主体化와 한 階級에 의한 「民族化」를 主張함으로써 真正한 統合에 의한 「民族化」를 妨害 또는 排除하는 것이 된다. 그 国際主義도 푸롤레타리아 国際主義로서 各 民族이 内部의 統合을 이루면서 民族의 線을 넘어 全世界的·全 人類的인 観点에서 紐帯와 結合으로 発展을 志向하게 하는 国際主義와는 다른 것이며, 나중에 소련은 이것을 로시아民族主義 또는 大国化의 拡大主義에 利用하였다. 그들이 強調한 被圧迫民族解放도 푸롤레타리아의 부르조아지에 対한 勝利 또는 「被圧迫階級의 解放」과 直結시키는 것이며, 한 階級을 民族과 同一視하는 態度를 그대로 나타내고 階級闘争 以外의 階級止揚의 方法은 생각되지 않고 있다.

맑스·엥겔스의 民族観, 즉 그들이 民族을 어떻게 理解하고 있는가는 主로 엥겔스에 의해서 表明되고 있는데 그는 民族을 動的인 것으로서 変化하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으며, 이것은 民族을 歴史的으로 生成·発展하는 것으로 把握하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民族을 地域의 共通性과 経済生活의 共通性 위에 成立하는 歴史的 共同体로서 보고 同時에 言語의 共同性이 重視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民族自決権을 認定하려고 하였다

는 것은 被圧迫民族의 解放을 重視한 것에서도 볼 수 있으며, 1896年의 第二인터내셔널·런던大会는 「모든 民族의 完全한 自決權」을 要求하는 決議를 採択하였다. 그러나 그 民族解放이라는 것이 被圧迫階級의 解放에 重点을 둔 것이라는 点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다.

맑스·엥겔스의 民族理論을 새로운 情勢下에서 보다 動的으로 適用해 나간 것은 레닌이었고 맑스主義 民族理論의 定型으로 생각되는 것은 스탈린의 民族理論이었다. 그러나 스탈린 以後의 変動은 劃期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레 닌 과 스 탈 린

레닌은 植民地 被圧迫民族의 民族自決権을 強調하고 로시아内部의 民族自決権의 承認도 主張하고 있다. 被圧迫民族의 民族自決権의 主張은 民族主義에 대한 尊重 또는 弱小国의 永続的 独立을 基調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諸民族의 独立을 위한 闘争이 帝国主義의 힘을 弱化시키고 이에 따라 各 国内와 크게는 全 世界의 푸롤레타리아트의 立場을 強化시킨다는 戦術的 計算에 立脚하고 있음을 明示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2] 스탈린은 이 点을 보다 솔직하게 表明하여 圧迫된 나라들의 民族解放運動 内部의 革命的 能力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그러한 能力을 帝国主義 打倒에 利用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여 푸롤레타리아트側으로부터 決然히 積極的으로 支持할 必要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後 그가 소련 内部와 共産圏 内部의 民族이나 国家가 自決이나 離脱을 하려고 할때 惨酷하게 弾圧하였다는 事実은 民族自決에 대한 本 意図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스탈린에 있어서는 로시아民族主義의 権化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에 執着하면서도 他面에서는 民族否定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어 二重性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하겠으나 이것은 오히려 소련과 소련을 中心으로 하는 共産主義를 위한 意図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民族否定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民族은 그 自体가 本来的 存在도 永続的 存在도 아니고 人間社会의 한 発展段階 즉 資本主義時代의 産物이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레닌의 見解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레닌도 資本主義가 社会主義로 移行한 後에는 民族――民族主義――

註2)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第1巻〉, 1970年 再版, P. 16.

民族国家는 서서히 그 힘을 喪失하면서 消滅하지 않을 수 없고 民族自決權의 要求는 푸롤레타리아트와 社会主義革命의 時代에 있어서는 브르죠아지의 경우에 있어서 처럼 <目的 그 自体>도 絶対的인 것도 될 수가 없다고 한다.

民族主義는 本質에 있어서 브르죠아的 課題로서 過渡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民族自決權이 최후의 目標로 삼는 것도 諸民族의 割拠主義가 아니라 社会主義内에서의 自由意思에 의한 統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統一을 予定하지 않은 分離運動, 民族自決 그 自体를 目的으로 追求하는 民族運動은 民族主義로서 필경은 反動的인 것이 된다는 것이며 레닌은 自己들 共産主義者는 <모든 民族主義의 敵>이라고 까지 公言하고 또 맑스主義는 民族主義와는 両立하지 않고 모든 民族을 보다 高度한 統一에로 融合하는 国際主義를 앞에다 내세운다고 한다.[3]

여기서는 그가 民族運動과 民族主義를 区別하고 民族主義를 排擊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共産国際主義를 위한 配慮와 그것을 위한 被圧迫民族의 民族運動 支持를 보게 되며, 로시아国内에 있어서는 革命後 또는 帝政로시아 崩壊後에 있어서의 各 民族으로의 分解를 막을 수 있는 事前의 布石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革命後에 로시아内의 非로시아民族의 거의 全部가 民族自決權을 들고 나와 로시아로 부터의 分離를 要求하게 되어 新生 共和国이 瓦解의 運命에 봉착하게 되자 레닌은 적지 않은 失望과 놀라움을 禁치 못했다고 하는데 民族自決이 統一에 優先할 수 있다는 可能性이나 必然性을 予見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고, 소련의 聯邦制는 그에 対한 하나의 解決策으로서 取해진 것이라고 하겠다.

註3) 上揭書 P. 21, P. 23.

聯邦制로 해도 共産党組織을 通해서 統一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基本前提는 푸롤레타리아의 階級的 利害가 民族自決의 利益과 自由보다 優位에 선다는 것이나 그것은 革命当時에 있어서나 지금에 있어서나 実際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民族의 分離權을 認定하면서도 그것을 分離의 義務와 混同시키려고는 하지 않았고, 分離權의 承認은 決코 分離反対의 宣伝과 煽動의 自由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条件을 添加했던 것이다. 民族解放鬪爭이 푸롤레타리아革命에 有利하여 그것에 利用할 수 있는 限界를 넘어 民族主義的 方向으로 이끌어질 때에는 이것을 볼세비즘에 있어서는 反動的 브르조아자의 <民族主義的 偏向>이라고 낙인찍어 왔고 소위 <브르조아民族主義>를 革命에 대한 敵으로 規定했으며 푸롤레타리아国際主義와는 敵対되는 것으로 보았다.[4] 푸롤레타리아国際主義를 위해 民族主義를 排擊하는 이러한 敎義가 그 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実現되지 아니하고 共産圈内에 있어서도 오늘날 国家別 共産主義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民族問題를 너무나 간단히 取扱한 実証을 보여주는 것이다. 共産圈内에 있어서도 国家間의 利害가 完全히 一致할 수는 없고, 푸롤레타리아의 利害가 国際的 또는 超国家的으로 同一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스탈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民族運動을 共産革命을 위해서 利用하려고 하였지만 民族運動 또는 民族鬪爭은 外見上으로는 「全民族的」인 性格을 띨지라도 이것은 다만 外見上의 것에 지나지 않고 本質에 있어서는 항상 브르조아民族鬪爭이고 主로 브르조아에 有利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民族도 言語, 地域, 経済生活, 文化

註4) 上揭書 P. 26.

의 共通性에 立脚하는 共同体로서 이러한 모든 特徵이 하나로 結合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中 어느 한 特徵이, 다른 경우에는 그中 다른 어떤 特徵이, 또 다른 경우에는 第三의 特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唯一한 本質的 特徵과 같은 경우 없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다만 여러 特徵의 集合에 지나지 않는 民族이라는 것은 브르죠아的이고 民族運動도 브르죠아的이라고 規定함으로써 民族主義를 否定하고 푸롤레타리아国際主義를 擁護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民族自決權을 認定하고 있어 矛盾된 二重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民族自決權에 대해서 留保的이기도 하였다.

例를 들면 그는 「民族은 自己의 運命을 自由로이 決定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라고 留保를 붙였고, 또 「民族은 自治的으로 해나갈 權利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分離하는 權利조차 가지고 있다. 그러나……」라고 制限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現実政治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브르죠아民族主義의 率直한 容認으로 나가고 어떤 때는 正反対로 푸롤레타리아的인 民族自治의 要求에 대해서 冷酷하고도 暴悪한 抑圧으로 나가므로서 定見이 없었다기 보다 必要에 따라 態度를 마음대로 달리하였다. 革命直後(1917年12月) 소련政府 自身에 의한 브르죠아·휜랜드의 独立宣言은 前者의 例이고, 이것을 始発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中心으로 하는 全 로시아辺境地帯에서 反볼세비키的인 브르죠아 諸政府가 誕生하자 스탈린은 그 直接의 責任者로서 各 方面에서 猛烈한 非難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는 民族問題에 대한 그의 態度를 「左」로 硬化 또는 急変하여 自決權을 브르죠아的인 것이 아니라 勤労階級의 自決權으로 解釈해야 하고 自決의 原則은 社会主義의

諸原則에 從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5]. 그 以後에 있어서의 그의 態度는 이렇게 急転換한 立場에 서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그의 民族理論이 質的으로 弱하다는 것과 브르죠아的 民族自決에 대한 푸롤레타리아的 民族自決의 本質把握에 있어서 失敗했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또한 그는 民族의 自由平等 그 自体에 대해서 조금도 敬意를 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며 結局 自決을 願하는 少数民族弾圧의 大民族主義者로서 끝나게 하는 結果가 되었다. 그 中間에 1929年에는 브르죠아的 民族과 社会主義的 民族이라는 民族의 두가지 類型을 設定하기도 하였고 1950年에는 다시 民族以前에 民族体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民族이 生成했다고 한 近代以前에도 民族은 아니지만 그 胚芽가 있었다고 追加를 하기도 하였다. 그의 理論上의 不備는 이렇게 마구 変更을 加해도 補完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根本的으로는 스스로 로시아民族主義에 執着하고 世界的인 規模의 共産主義 拡大를 위해서 利用할 수 있는 경우에는 民族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抑圧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民族分裂을 助長했다는 非難을 免치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러面에서 指摘할 수 있는 것이다. 民族을 두가지 類型으로 나눈 것과 民族自決権은 勤労階級의 自決権으로 解釈해야 한다고 한것, 同一民族의 経営主와 労動者가 서로 理解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民族의 「文化的 共通性」을 真正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한 것도 그 例이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結果를 나타낼 수

註 5) 柴田高好, 맑스主義 政治論에 있어서의 民族理論의 再検討, 竹原 編著 前掲書 PP. 95-100 参照

있는 것은 그의 民族概念에 있다. 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民族은 言語, 地域, 經濟生活, 文化의 共通性에 立脚하는 共同体로서 他 民族에 比해서 경우에 따라 그中 어느 한 特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添加해서 이러한 特徵의 하나라도 欠如하게 되면 그것만으로서 民族은 民族으로 成立하지 않게 된다고 한 点이다.(6) 이것을 萬一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그 自身에게 責任이 있는 分断国家에 있어서는 經濟生活의 共通性이 없기 때문에 同一民族이 아니라는 것이 되고 말것이며, 暫定的인 分断도 民族을 달리하게끔 하는 것이 된다.

勿論 그의 民族概念은 二次大戰 以前에 내린 것이고 그의 死後에 있어서의 그에 대한 批判과 事態의 変遷은 그의 理論에 따를 수 없게 하는 것이지만 到処에서 民族分裂을 助長하고 実際로 두 나라의 分断에 責任이 있다는 非難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의 末期에 衛星国家들의 自主化努力을 弾圧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民族軽視의 証拠이며, 結局 그의 死後에 있어서는 共産圈內에 있어서 国家別 共産主義의 方向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民族은 無視할 수 없는 것이고, 共産圈內에 있어서도 国家間의 利害의 対立이 있고 国家의 利害가 勤労者의 国際的 団結에 優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맑스·엥겔스 以來의 国際主義는 幻想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

맑스·엥겔스에서 레닌을 거쳐 스탈린에 이르는 共産主義 民族理論은 지금에 와서는 古典으로 化한 것이 많고 그간에 補充 또는 変更되어 一慣性이 없겼으나 共産主義와 共産化라는 基本戰略에는 다름바 없고 이 때문에 古典에서 「教訓」을 찾아 새로운 事態下

註6】 上揭書 PP. 95-96 参照.

에서도 適用해 보려고 다시 試図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例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民族을 代表하느냐에 관한 것인데 레닌에 있어서는 社会가 브르죠아民主主義(資本主義)로부터 푸롤레타리아民主主義(社会主義)로 移行하는 現時代에는 푸롤레타리아階級을 그 民族의 意思를 代辯하는 者요 푸롤레타리아트의 前衛인 共産党員은 各 民族의 엘리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分断国家 雙方間의 交渉에 있어서 그들이 代表의 問題를 이러한 式으로 提起하드라도 貫徹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 交渉에 있어서 雙方의 諸政党과 社会団体 代表를 参席케 하자고 主張하는 例를 볼때 그 底意가 共産党의 主導権 貫徹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革命直後에 있어서 帝政로시아 領域内의 非로시아 諸民族의 分離를 赤衛軍에 의한 弾圧과 分離反対의 煽動과 少数派의 볼세비키의 반란, 스탈린에서 본 바와 같은 民族自決権의 解釈変更(푸롤레타리아의 自決権)과 聯邦制採択으로 謀免하는 한편 全 聯邦을 通한 唯一한 存在인 共産党을 利用하여 이 聯邦을 中央集権化 또는 統一할 수 있었듯이 衛星国家에 대해서도 各国의 共産党과 그 「正統性」認定을 通해서 이들 国家를 統制할 수 있었는데 事情은 漸次 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革命後에 共産党에 의한 旧로시아 帝国領土의 再征服을 여러가지의 惡辣하고 民族自決과는 背馳되는 方法으로 遂行했듯이 共産国家에 대해서 国家別 共産主義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다시 再征服을 試図할 可能性은 남아 있는 것이며 아직 支配해 보지 못한 地域에 대해서는 「民族自決」을 煽動할 수도 있는 것이다. 旧領土의 再征服 方法을 스탈린은 国際政治面에서 適用하였고, 지금도 그것을 全的으로 抛棄한 것은 아닌 것이다.

레닌과 스탈린에 있어서는 真正한 民族主義는 敵待視하거나 抑圧

하였고, 스탈린의 말처럼 民族問題는 「푸롤레타리아革命이라는 一般的 問題의 一部分이며 푸롤레타리아트는 独裁의 問題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레닌은 韓国 共産主義運動에 대해서도 民族主義化를 反対하고 民族独立運動의 소위 「브르죠아」的 性格을 警戒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反帝国主義的 革命性 때문에 戰略的으로 그것을 利用하려고 한 것은(7) 지금까지에 본 그 一般路線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레닌과 스탈린에 있어서의 反帝国主義, 푸롤레타리아 国際主義, 푸롤레타리아 民族自決, 帝政로시아 領土의 再征服, 国際的 共産化의 企図 등등의 背後에는 強한 로시아民族主義가 作用하여 로시아의 大国化主義 또는 새로운 共産帝国主義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資本主義 国家 特히 英·美에 대한 競争心과 「追越慾望」이 作用하고 있나는 것은 両人의 初期부터의 여러 発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被圧迫民族의 解放이라고 하는 것도 結局 自己들 陣営에서 自己들의 主導에 따르는 条件下에서의 支援을 通한 独立을 말하는 것이 되며 여기에서 純粋한 民族独立의 支援이란 볼 수 없고 国際政治에 있어서의 冷酷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共産主義는 소련의 大国化에 寄与 또는 利用된 面을 看過할 수 없으며, 民族問題도 또한 처음부터 無視되거나 달리 利用되어 왔다. 소련革命 初期와는 状況이 달라진 지금에 와서 共産陣営에서 새로운 民族理論을 提示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으며, 아직도 레닌·스탈린의 基本路線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것 같다. 그 例로서 소련이 後進国과의 関係에서 提示한 소위 「民族的 民主主義」(1960 年 모스

註 7) 梁好民, 前揭書, PP, 30-35 参照

크바宣言)도 이에 바탕을 둔 民族運動을 階級鬪争으로 移行한다는 戦術的 表現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1968年에는 보다 民主的이고 「人間的」인 社会主義路線을 取하려고 한 체코에 대해서 소련은 武力으로 侵攻을 하였으며 체코의 状況에 맞는 社会主義路線을 取하려고 한 共産党 指導者들은 除去되고 말았다. 폴랜드, 항가리에 대한 抑圧도 이와 마찬가지로서 소련의 方式과 統制를 어떻게라도 強制하려는 意図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다만 유고와 中共에 대해서는 例外로 그 強制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中共과의 関係는 이데올로기의 差異 때문이기도 하지만 両国의 民族主義의 対立이기도 하다.

Ⅲ. 現況의 檢討

1920年代에서 50年이 지난 1970年代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소련의 民族問題에 대한 政策은 基本的으로는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植民地 또는 從屬国에 대한 政策도 그러하다. 20世紀에 들어와서 特히 第2次大戦後에 많은 植民地가 独立하여 主權을 가진 民族国家가 되었으나 実際로는 아직도 政治的·経済的으로 従属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직도 植民地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소련 共産党의 綱領은 各 民族国家에 대해서는 兄弟的인 同盟을 結成하고, 民族独立의 獲得과 強化를 指向하는 諸民族과 植民地体制의 完全한 打破를 指向하는 全 民族에 대해서는 援助를 提供하는 것을 目標로 삼는다고 한다. 그리고 各 民族国家는 「客觀的」으로는 主로 「進步的·革命的·反帝国主義的 勢力」이라고 생각되고, 被圧迫民族의 民族主義는 抑圧에 反対하는 一般民主主義的 内容을 가진다고 評価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広範한 「愛国的 民主勢力」의 統一의 可能性이 있고 또 그것이 必要하다고 한다.(8)

이와같이 如前히 弱少国家와 被圧迫民族에 呼訴하고 있는데 「従属」, 「兄弟的」, 「進步的·革命的·反帝国主義的」, 「愛国的」등의 用語에 問題가 있으며 「同盟」과 「援助」의 真実性도 소련의 衛星国家에 대한 지금까지의 態度로 보아 問題가 된다.

中共도 또한 그들대로 反帝国主義와 反植民主義闘争 帝国主義者들의 「犯罪的陰謀」, 民族独立과 国家主權, 民族的 「民主革命」등의 用語를 驅使하면서 콩고등 아프리카와 그외의 地域의 여러나라에 接近하였고 또 계속 接近을 試図하고 있다.

註8) 中西 治, 소련의 外交, 1971年, P. 138.

이리하여 弱少国家中에서 共産主義方式을 따르려는 部類에서는 소련接近系와 中共接近系 그리고 国家的 또는 民族的 共産主義를 내세우는 系列등 세가지가 있게 된다. 이들은 모두 맑스·레닌主義 革命論者에 속하며,共産主義者 以外에 그 国家内에서 根本的 変動을 가져온後 그国家利益에 따른 外交政策을 遂行하려고 하는 革命的 民族主義者(Revolutionary Nationalists)와 한国家의 範囲를 넘어 여러나라가 共同으로 革命運動을 遂行하려고 하는 汎民族的 革命論者(Pan-national Revolutionaries)그리고 한 国家의 既存 政治制度에 対抗하여 그 内部의 少数民族이나 特定地域의 自治를 要求하는 地域的 革命的 民族主義者(Regional Revolutionary Nationalists) 도 있다. 이것을 特히 아프리카에서 그러하지만 맑스·레닌主義 革命論者가 위에서 든 그 以外의 革命論者와 다른 点은 소위 「科学的 社会主義」에 立脚하는 共産国家를 樹立하려고 하는 点과 地域的 또는 汎民族的 単位의 革命運動을 排擊하는 点, 모든 不関与(nonalignment)政策에 反対하고 어느 한 共産陣営에 公公然하게 加担하는 것을 強調하는 点에 있다.[9]

소련은 共産国家가 自己들 陣営에 加担할 것을 要求할 뿐만 아니라 소련의 方式에 따르고 그에 従属할 것을 要求하며, 各国의 歴史的 発展段階,「進歩的」인 民主的 伝統, 慣習과 文化와 理念에 따라 그에 適合한 社会主義를 建設하려고 하는 人民의 要求에도 反対했다. 소련이 要求하는 方式이란 中央集権的인 共産党 支配方式만이 아니라 重工業為主의 工業化方式과 모든 主要 工産品 生産에 있어서 1人当 生産業績이 短時日内에 先進 資本主義 国家에 따라 가고 또 넘어서는 것, 스탈린이 1950年에 체코의 共産党指

註 9) Colin Legum, Africa's Contending Revolutionaries, in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2, PP. 6-8.

導層에 要求한것 처럼 生産과 輸出을 東欧에 指向케 하도록 180度 変更하고 特히 大量의 重工業製品을 다른 社会主義国家(特히 소련)로 보내는 것 등이 包含되어 있다. 政治的 隷屬뿐만이 아니라 経済的 隷屬도 強要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그 結果 重工業為主로 因해서는 체코의 경우 農業, 軽工業 消費製品과 食料品 生産, 輸送, 住宅建築, 貿易등 다른 모든 分野의 発展을 犧牲시키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生産의 非能率性이 增加하고, 生産技術의 現代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過去에 評価를 받던 체코 輸出品의 質은 低下하고, 其他 市場의 喪失과 貿易의 適切性 低落을 가져 왔고, 人民의 生活에 많은 支障을 가져 왔다. 完全히 中央集權化된 経済計劃의 命令経済的 性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체코의 労動生産性은 先進 資本主義国家에 따라가기는 커녕 1966年에도 벨즘, 西独 英国의 約 半이었고 瑞西와 스웨덴의 5分의 2, 美国의 約 4分의 1이었다. 그해의 生産品 単位別 또는 GNP $ 1,000当 에너지 및 鋼鉄의 消費量도 그 消費量이 가장 적은 瑞西에 比해서 約 5倍 내지 4倍에 達하고 그外의 経済指数도 低調하였다. 모든 것의 根本原因은 中央集権的인 官僚的 経済統制를 包含하는 소련式의 命令的 行政方式(command system of administration)에 있었다는 것이며, 그 後의 経済改革은 이것을 除去하고 市場과 価格 貨幣등의 経済的 機能을 回復하며 市場의 利潤動機를 賦与하고 貿易을 行政機関으로부터 分權化하며 各 企業体의 労動者代表가 委員会를 構成하여 社会主義的인 管理를 맡게 하였다. 이러한 広範한 改革은 결경 共産党指導層의 更迭로 政治的 改革도 가져 와서 1968年初는 체코의 「봄」이 되었으며 체코人들은 이러한 社会主義的 経済体制위에서 政治的 民主主義를 樹立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西欧 民主主義의 欠点을 避하면서 그보다 더 民主主義를 発

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까지 생각하였다. 그들이 目標로 한것은 스탈린式의 独占的 権力体制와는 訣別하는 根本的 変動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그외의 共産国家 指導者들은 이러한 改革이 그들의 地位에 致命的인 威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資本主義를 再導入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코에 適合한 보다 「現代的이고 人間的이며 民主的인」 社会主義를 建設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民主的인 「伝染病」이 그들 自身의 나라에 伝播될까 해서 結局 武力으로 弾圧하고 말았으며 체코人들에게는 그들의 「自由」가 소련軍의 占領에 의해서 救済되었다고 説得하려 하였다. 다시 소련의 方式은 強要되었고 체코는 混乱과 危機에 빠지게 되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도 事態는 크게 安定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10)

체코는 二次大戦中 소련의 占領으로 소련의 衛星国家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소련의 支配와 統制가 이렇게 強하다는 것은 다른 衛星国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과 소련의 「援助」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国家나 民族에게도 비슷한 支配와 統制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다.

共産圏内에서도 各国의 相異한 状況과 経済向上에 対한 人民의 要求는 소련式 方式의 画一的인 強要를 漸次 어렵게 할 것이고 소련 自体도 経済方式의 緩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것이며 実際로 各 国家別 社会主義와 소련経済의 改革을 보이고 있지만 소련의 大国主義와 새로운 帝国主義, 메시안的 民族主義(Messianic Nationalism)는 어떠한 形態로든지 집요하게 支配를 追求할 것이

註10) Ota Sik, Prague's Spring : Roots and Reasons — The Economic Impact of Stalinism, in Problems of Socialism, May-June 1971, PP. 2-10 参照.

다. 真正한 메시아(Messiah)는 되지 못하였고 一定한 이데올로기와 教義를 통해서 利他的인 救済가 아니라 支配와 征服을 拡大하려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背後에는 圧倒的인 武力이 있고, 그 이데올로기에는 資本主義의 弱点을 指摘하는 힘도 있으며 択一的으로 어떠한 外部의 援助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弱少国家나 被圧迫民族에게는 하나의 救援要求処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援助라는 것에는 条件이 따르며 国際政治의 現実에서는 露骨的으로 自国의 利益이 追求되고 있다. 真正한 国際主義는 보이지 않으며 超強大国의 하나로서의 世界的인 責任을 負担하고 있지도 않다. 世界 여러 곳에서 分断과 民族分裂, 民族間의 相残이 일어난데 대해서 一方을 支援함으로써 解決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責任은 오직 相対方에게만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同一 民族間의 敵対와 相残이 結局 누구를 위하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分断国家의 統一은 分断된 雙方의 合意가 가장 어려운 点이겠지만 周辺의 関係国家들의 内面의 態度에도 달려 있는 것인데 소련의 경우 그 勢力圏의 喪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勢力이 縮少 또는 不確実하게 되는데 대해서도 反対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非共産系에 속하는 分断国家의 一方은 他方과의 関係改善과 함께 소련과의 関係樹立도 考慮할 必要가 있을 것이며 西独은 이 例에 따르고 있다. 西独은 1970年에 独蘇基本条約을 締結하였고 最近에는 西独議会에서 東西独 基本条約을 批准하였으며 소련과의 経済 文化交流 増進 및 航空交通에서의 協助를 規定한 3個 条約을 推進하고 있다.

東西独基本条約으로 戦後 20餘年間의 敵待関係를 解消하고 東西独 住民들의 相互訪問, 経済 文化交流등 関係改善의 積極 推進이 可能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東西独 및 소련과의 関係改善이 統一에의 길이 될 수도 있겠으나 바로 統一을 保障하는 것도 아니고 統一과는 関係없이 그것만으로서의 意味를 가지는데 그칠 수도 있다. 소련은 統一된 独逸의 強大化를 憂慮하는 나머지 그 統一을 願치 않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소련은 分断国家의 統一에도 障碍要素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고 民族의 悲願에는 自己들의 利益때문에 無関心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共産化統一이 不可能한 限 分断国家의 다른 一方과의 関係改善이 고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Ⅳ. 展　　望

맑스의 여러豫言, 즉 将次의 世界革命이 資本主義社会와 民族国家를 消滅하고 労動階級 統制下의 超国家的 国際社会를 出現시킬것이라는 予言 또는 歷史分析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共産圈內部에서도 高次的인 統一이 아니라 民族国家 単位로 利害가 対立하고 特히 소련과의 關係가 그러하며 여러블록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共産国際主義라는 理念은 民族国家의 理念이 얼마나 強한가를 옳게 評価하지 못한 탓이고, 結局 그것을 克服하지는 못하였다. 労動階級의 利害가 国際的 또는 全世界的으로 一致할 수는 없는 것이며 共産主義 그 自体가 本来 国家単位의 性格을 띤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따라서 全世界的인 生産, 交換, 分配의 体系를 随伴하는 진실로 国際的인 共産主義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労動階級의 利益이 共産主義에 의해서 보다 向上되었다면 労動階級은 보다더 民族主義的 傾向을 強化하고 보다더 国家에 依存하여 愛国的 또는 国家的이 될 것이다. 소련에서는 처음부터 或은 特히 스탈린에 이르러 共産国際主義라는것이 로시아 民族主義에 利用되거나 그것에 立脚하는것이 되었으며 그는 国内에서는 共産主義의 強化와 함께 民族主義를 鼓吹하였고, 民族主義 鼓吹를 通해서 共産主義를 強化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特히 그는 二次大戦에 있어서는 民族主義를 最大限으로 利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련이외의 다른 国家나 地域의 民族主義는 無視하거나 抑圧했다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그의 死亡後에 共産圏은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지고 国家別 共産主義의 傾向을 보이게 되었으며 各 블록사이의 対立조차 보이고 있다. 같은 블록안에서도 체코와 東独과의 사이에서의 Franz Kafka 에 関聯된 紛争, 유고와 불가리아와의

사이에서의 Macedonia에 關聯된 紛爭 등 소위 「社会主義国家聯合」 "Socialist commonwealth"內部에서도 軋轢모델(Conflict Model)을 보여주고 있다.[11)]

国家別 共產主義의 立場에서는 共產主義世界를 成就하는 唯一의 正確한 方法은 各国에서 個別的으로 共產主義를 樹立하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며 이것은 소비엣드 로시아를 母国으로해서 그 周辺에서의 共產主義軌道라는 스탈린의 主張에 挑戰하는 것이다. 共產国家들이 過去의 民族主義를 再強調하려는 決意를 높이게되자 크레믈린에서도 不得已 漸次로 그 立場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모스코는 共產主義를 規定하는 唯一의 場所는 아니라고 讓步하게 되었고 이러한 共產主義的 民族主義 또는 共產民族主義(Communist nationalism)는 앞으로 長期間의 勢力으로 남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12)]

맑스의 共產主義는 本来 国家的 単位에서 可能한 것인데 国際的인 것으로 만들려는 戰略을 內包시켰으며 레닌과 스탈린은 이것을 로시아의 利益을 위해서 利用하였으나 結局 成功을 보지 못하였다. 共產国家들이 国家別로 共產主義方式에 따라 大衆, 特히 労動階級에게 生活의 向上을 가져오고 国家威信을 높여주며 資本主義国家에서 보다 더 安定되고 平等한 生活을 保障하게 되었다고 宣伝하고 資本主義国家에 대한 敵対意識을 助長한다면 大衆은 더욱더 그들대로의 民族意識을 갖게될 것이며, 맑스의 予言과는 달리 民族主義的 傾向을 強化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大衆은 外部世界와는 遮斷되어 資本主義国家의 実情을 알지못하고 敵対心과 함께 優越感과 使

註 11) Henry Krisch, The GDR and Soviet Policy in Germany, Interest Assertion in an Unequal Alliance, 1971. P. 1.

註 12) Louis L. Snyder, The New Nationalism, 1968, P. 312.

命感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分断国家에 있어서의 共産側은 보다 더 이러한 傾向을 나타낼 危險性이 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의 民族主義는 自由陣営国家의 民族主義와는 性質이 다른것이 되기쉽고, 共産主義的 民族主義中에서도 極烈한 것이 되기 쉽다. 分断状態가 길어질수록 民族主義의 內容이 달라지고 同一한 民族이라는 観念이 稀薄하게 되며 言語, 経済, 生活, 文化 등의 差異때문에 事実上 民族이 달라질 可能性조차 全혀 없지는 않은 것이다. 스탈린은 앞에서 본것처럼 経済生活의 差異가 당장에 民族을 달리하게끔 한다고 하였지만 数千年의 歴史에서 20~30年의 分断과 差異로 民族이 달라질만큼 同一性과 同一感情이 弱化한것은 아닐 것이다.

共産主義는 本来 国際的이 아니라 国家的 性質의것이며 実際로 国家単位로 組織되어 強化가 試図되고 있으므로 国際的이기 보다 国家的이다. 自由陣営에 있어서도 民族的, 国家的 単位로의 集結傾向은 強하고 UN과 같은 国際機構도 完全히 国際的인 것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共産国家에서 그들대로의 民族主義가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보다 더 優勢하냐의 問題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보는 見解도 있지만 13) 北韓에서는 이데올로기가 民族主義보다 더 強調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그곳에서 強調되고 있는 것을 新聞을 通해서 세밀하게 調査研究한 것에 따르면 14) 愛国보다는 社会主義, 「国家機関」이나 個人보다는 党이 더 強調되고 있고, 32個나 되는 大衆動員方法中 党 밑에서의 成果, 党 밑에서의 能率이 내셔널리즘 밑에서의 成果와 能率보다 더 強調되고 있다. 그리고 党 밑에서

註13) Snyder, op. cit., PP. 318-319.

註14) 李文永, 北韓行政権力의 変質要因에 관한 研究, 1969年에서 申宗淳, 近代化와 行政方式의 比較, 安保研究 第2輯, 1972年 P, 35에 引用.

能率을 올리는 方法으로 보이는 것은 크게 나누어 ① 이데올로기의 要求 ② 一般的 方法改善 ③ 具体的 方法改善 ④ 教育의 強調 등의 順位로 나타나 있고, 내셔널리즘 밑에서 能率을 올리는 方法으로 보이는 것은 크게 나누어 節約, 社会主義的 愛国主義와 教育 등이다.

共産国家는 共産主義를 樹立할려고 함에있어 民族主義的 目標를 가지거나 그것이 基礎가 된다고 하겠지만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民族主義를 利用하며 그 이데올로기와 民族主義가 混合된 特異한 民族主義 또는 共産主義的 民族主義가 되어버린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民族主義는 그곳에서도 消滅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国家에서 이데올로기와 方式을 달리하면서도 真正한 것이든 아니든간에 発展과 成長과 国家利益을 追求하고 있고 各国의 民族主義的 国家中心的 傾向은 오히려 増加하고 있다. 万里長城을 삽과 괴로 새로 만들고자 하는 中共의 国歌에 이르기까지 150 個가 넘는 国歌에는 모두 民族的, 愛国的인 内容이 담겨있다.[15)]

国際主義는 共産国際主義를 包含해서 모두 民族主義에 優勢하지는 못하고 있고 많은 新生国家에 있어서는 새로이 強한 民族意慾을 나타내고 있다. 既存国家에 있어서도 民族主義的 傾向이나 国家中心, 国家利益追求에 있어서 減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国家間의 条約과 協定, UN 의 여러 活動 기타 国際法의 体系는 漸次 増加하고 있으나 아직 国家中心 또는 国家単位를 벗어날 수는 없다. 国際政治에 있어서의 힘의 関係는 여전히 存続하고 있으며, 国家利益을 위한 各国間의 同盟方式과 両大陣営으로의 分裂도 根本的으로는

註 15) Snyder, op. cit., P. 363.

変하지 않고 있다. 相異한 이데올로기와 体制사이에서의 平和共存의 努力은 継続되고 있으나 融合의 努力은 不足하고 또 어려워보이며, 競争은 여전히 継続되고 있다. 世界国家, 国際憲法, 世界語, 統一된 世界史 編纂과 같은 理想을 내세우는 사람도 많으나 아직은 理想에 지나지 않으며 UN도 本来의 目標를 充分히 達成하지는 못하고 있다.

各 国家와 民族의 利益이 中心이 되고있는 現状態에서 民族主義의 減退는 어려워 보이고 또 将来에 있어서도 없앨수 없는 것이며 없앨 必要도 없다. 그러나 그 過剰은 막아야 하고 民族과 国家의 立場에 서되 同時에 国際的, 世界的인 立場을 더욱더 強化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交通 通信의 発達과 各国間의 経済的 利益의 関聯이 増加하고 있는 現状態下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며 人類의 発達水準으로 보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民族主義가 各各 그 内容을 달리해서 利己와 敵対와 相互犠牲의 原因이 된다면 人類의 基本問題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으로서 그 基本問題의 未解決을 나타내는 것이며, 人類의 将来도 問題가 된다. 건전한 民族主義와 真正한 国際主義의 両立 또는 後者의 前者에 대한 優勢가 漸次로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主義를 政治的으로 悪用한다든지 一定한 이데올로기와 結付시켜 歪曲한다든지 敵対時. 征服的 意図에 動員한다든지 하는 共産主義的 民族主義는 가장 危険하고 真正한 国際主義와 人類発展의 要望에 逆行하는 것이 된다. 特히 分断国家에 있어서의 共産側의 民族主義의 歪曲과 悪用은 統一에 障碍가 되는 것이며 唯物論的 歴史観에 의해서 民族史를 달리 着色하고 自己民族에 대한 民族観을 달리하게끔 하는것이다. 分断国家의 統一努力에 있어서 同一民族이라는 点이 가장 強한 接着剤이며 双方의 모든 異質的

要素를 이것으로 解消할 수 있는 最高의 「呼訴価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問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呼訴는 継続되어야 하고 双方의 民族観의 差異解消와 理解増進과 融合을 위한 모든 努力이 試図되어야 할 것이다. 一方의 感傷的인 民族主義와 他方의 極烈한 共産的 民族主義와의 差異에서 새로운 真正한 民族主義를 찾아 共同의 基盤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理解増進을 위한 努力과 함께 家族찾기로 부터 始作해서 慎重하게 交流와 協力과 融合의 길을 拡大해야 할 것이다. 言語의 差異가 拡大되지 않도록 同一化의 努力이 併行해야 할 것이고 初等教育에서 부터 敵対感과 偏見의 除去는 勿論이고 一体感의 涵養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努力도 이데올로기의 差異를 解消하지 않는 限 바로 統一에 이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며 그것이 達成할 수 있는것은 一体感의 接近위에서의 平和共存의 程度일 것이다. 平和共存은 소련外交政策의 基本原則의 하나라고 하지만 그것이 共産圏全体에서 原則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 그것은 소련이 美国을 圧倒하지 못할 뿐더러 美国과 自由陣営의 여러 国家와의 経済, 技術面의 努力이 必要하다는 計算에서 平和무드下에서의 実力培養을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共産圏域의 現状維持 또는 固定을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어쨌든 平和는 바라야 할 것이나 平和共存이라는 것이 共産側의 地位固定과 統一에의 障碍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分断国家의 統一에 있어 同一 民族이라는 点이 最強의 接着剤 또는 最高의 「呼訴価値」라고 생각하는데도 問題가 없지 않고 또 共産側에 있어서는 民族보다도 이데올로기가 더 優位에 있다는 点이 統一에의 가장 큰 難関이 되고 있다. 共産側에 이것을 解消

하려는 意図가 있는것 같지는 않으나 다함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찾아야 한다. 以上에서 共産主義의 理論과 実際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처음부터 民族主義보다도 共産国際主義를 내세우면서도 共産主義拡大를 위해서는 被圧迫民族解放을 부르짖고, 民族의 自決権을 主張하면서도 이것을 弾圧하는 両面性과 그 背後에 로시아 民族主義 또는 大로시아主義 새로운 共産帝国主義가 強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民族의 概念을 為始하여 부르조아 民族主義와 푸롤레타리아 民族主義를 나누는 点과 経済生活의 差異가 바로 民族을 달리하게끔 한다는 主張, 푸롤레타리아 民族代表説등에서 民族分裂 助長의 홈이 있는것도 指摘하였다. 共産国際主義는 幻想으로서 実現不可能한 것이 実増되었으며 共産主義는 本来 性質上 国際的이 아니라 国家単位의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国家別 共産主義라는 지금의 傾向속에서도 소련의 支配強化의 可能性을 볼 수 있었으며, 特히 共産国家에 있어서 民族主義가 共産主義 또는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 利用되거나 悪用되고 이데올로기와 結付된 共産主義的 民族主義로서 危険性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分断国家에 있어서의 共産側의 歪曲된 民族主義가 統一에 障碍가 될 수 있는 点과 民族이라는 点이 統一에의 가장 強한 接着剤가 되지않을 수도 있는 点과 또 하나의 克服해야 할 가장 큰 難関으로서 共産側이 民族主義보다 더 優位에 두는 共産主義 이데올로기가 있으므로 함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찾아야 한다는 点도 指摘하였다.

相互間의 接近을 위한 모든 努力을 慎重하게 展開할 必要性을

말했지만 그 限界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民族的, 国家的 単位의 国際政治라는 現実에서 漸次로 건전한 民族主義와 真正한 国際主義와의 両立 또는 後者의 優位라는 方向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民族이나 国家 相互間의 対立과 相互犠牲을 止揚해야 하는 人類의 基本問題가 남아있는 限에서는 누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三.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의 歷史

Ⅰ. 統一国家形成 및 維持와 民族主義

韓半島에서 統一된 民族国家를 形成한 歷史過程의 始発은 新羅의 統一이라고 하겠다. 三国以前의 時期는 民族国家라기보다는 部族国家的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三国의 競争을 克服한 新羅의 統一国家形成이 民族主義의 始源이며 民族国家形成의 始初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民族国家形成은 欧洲諸国의 그것보다 적어도 7世記나 빠른것이었다고 생각된다.

新羅가 統一을 하기 이전에는 三国이 서로 同一한 民族的 環境에 있으면서도 国家意識을 달리하고 있었다. 4世記부터 6世記에 걸쳐 이들 三国은 各己 자기 나라의 国家意識을 높이기 위해서 仏敎思想을 방편으로 이용했다는 共通点이 있으나 競争的인 文化와 制度를 통하여 다른 雙方을 흡수하려 하였고 그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났다. 특히 高句麗는 扃堂制度를 新羅는 花郞制度를 채택하므로서 競争的 입장에서 三国統一이라는 民族国家形成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다.[1]

新羅가 統一을 이루어 가는 過程에서 唐의 힘을 方便으로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때부터 우리의 民族主義的인 歷史가 싹텄다고도 할 수 있다. 660年과 667年에 百済와 高句麗에 進入하여 三国을 統一한 新羅는 方便으로 이용했던 唐軍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671年부터 676年에 걸쳐 新羅는 援軍의 地位에서 百済와 高句麗地域에서 準植民経営을 하려는 唐軍을 逐出하는 싸움을 하였던 것이다.[2]

註1) 国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1972. PP. 10～11.

註2) 韓佑근, 韓国通史, 1970. PP. 88—91.

逐唐의 싸움에서 新羅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全韓半島가 이미 同一文化(文化的 統合)를 形成하고 있었기 때문이며[3] 그에 기초한 民族意識과 民族主義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新羅統一期의 民族主義는 두가지 側面에서 생각할 수 있을것이다.

하나는 国土統一을 위한 前提로서의 民族主義이다. 同一文化 즉 文化的 統合性을 유지하고 형성시킴으로서 韓半島的인 民族主義를 만들어 내고 그에 따르는 国家統合을 하려는 것이다. 물론 三国間에 또 三国内에 民族的 同一体感이 完熟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面에서의 民族主義는 萌芽的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統一을 完成하고 民族国家의 보존을 위한 民族主義이다. 즉 唐이라고 하는 他国에 対한 排外性을 지니는 民族主義이다. 統一을 지원한 唐이 百済地方 및 高句麗地方을 植民地하려 하자 이를 追放하기 위한 民族主義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新羅의 政治的 統一과 民族国家形成이 곧 内的인 民族意識 또는 民族主義의 形成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다.[4]

그것은 싹에 지나지 않았고 支配階層의 貴族主義的인 性格을 지니는 것이었다.

註3) 高句麗가 扃堂을 통한 忠,孝,信을 教育하고 新羅가 世俗五戒를 教育함으로서 基本的인 精神支柱와 文化는 同一化의 可能性을 지니고 있었다.

註4) 統一研修所, 前掲書 P.11.

国民的이고 全般的인 民族主義는 新羅統一에서 後三国 및 高麗의 再統一이라는 긴 歷史過程을 거치는 동안에야 비로소 뿌리깊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먼저 領土的으로 統一한 新羅는 文化的 溶解過程을 거쳐 民族的 統合을 꾀하였다. 즉 政治權力의 統合을 先行시키고 民族文化統合을 後行시키는 方式을 취하였다. 民族文化統合을 위한 노력을 하는 近百年間에 韓半島에는 韓民族이 하나의 완전한 民族国家를 형성하여 갔다고 하겠다. 종래에 있었던 部族国家的인 諸要素를 제거하고 三国間에 異質性을 지녔던 文化를 新羅的인 것으로 変容시켜 가는 동안에 政治的으로 뿐만아니라 文化的으로도 同一民族国家를 형성하고 部分的으로는 国民的 民族主義를 세워갔다.

그러나 新羅의 이러한 努力은 国土를 統一한 後 100年도 못되어 崩芽되기 시작하였으니 後百済 및 後高句麗의 등장때문이다. 三国으로의 再分裂은 政治的인 것이 그 要因이 되기는 하였으나 民族史的인 입장에서 본다면 民族的인 結合力이 部族的인 結合力에 의해서 밀려 났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後三国의 登場은 韓半島에 있어서 民族国家形成을 一時的으로 後退시킨 것이었다고 하겠다. 後三国이 생기게 된 것이 주로 政治的 權力闘争때문이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成立되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民衆의 前王朝에 대한 復古心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이 復古意識과 三国으로의 再分割은 韓半島的인 民族意識의 形成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後三国을 타개하고 国土를 再統一(918年)한 高麗가 세워짐으로서 우리国土에는 民族意識 및 民族主義가 기틀을 잡았다. 高麗을 創建한 王建太祖의 「十訓要」에 나타난 自主精神은 高麗朝를 一貫한 自主民族観의 기틀이 되었고 対外政策의 理念이 되었는데 이것이

韓国民族主義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新羅가 民族을 意識한 民族統合을 한 面이 적었음에 대하여 高麗朝의 統一国家는 民族을 意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国家를 建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新羅가 民族的인 각도에서 文化統合을 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高麗는 檀君神話에 의해서 民族文化 내지는 民族精神에 의해서 民族文化의 統一化를 하였던 것이다.[5)]

対内的인 結束을 위한 手段으로 활용됐던 檀君神話와 仏教精神은 民族的 団結의 口実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前者는 対外的인 抵抗力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後者는 固有의 仏教的인 民族文化를 형성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民族的인 文化가 형성되고 対外的 民族主体性이 확립되어 民族国家가 完成하기에 이른것이다.

高麗朝에서 民族自主意識에 依한 統一된 国家를 유지하고 発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와 같은 内治的인 것에서도 淵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外国의 作用도 적지않았다고 생각된다.[6)]

그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하나는 高麗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地方이 安定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宋, 元, 明등의 滅亡을 前後하여 大陸은 政治的 不安状態에 있었을뿐만 아니라 満州地域과 中国의 中原間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다. 大陸에서의 不安은 大陸에 대한 政策이 自主的일 수 있게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蒙古의 侵入이다. 이 侵入이 있기 前까지 内部에서 安住하던 우리 民族은 하나의 치욕의 歷史를 맛보게 되었고 이로서 民族意識이 크게 提高되기에 이른 것이다.

註5) 上掲書, P. 12.

註6) 上掲書, P. 12.

高麗朝를 통하여 民族意識이 確立되었다고는 하나 지금의 韓半島 全部가 우리 祖上의 生話領域圈은 아니었다. 咸鏡道와 平安道의 北部는 韓民族의 生話圈밖에 있었던 것이다. 世宗大王以後에야 비로소 지금의 우리 民族의 生話圈이 確定되었기에 이르렀다.

어떤 뜻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統一된 民族国家는 李朝에 이르러 完成을 보았다고도 할 수 있다. 満州의 諸族과 韓民族이 압록 및 頭満의 両江을 境界로 民族的 生話圈을 確立하였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全半島的인 統一国家가 完成되고 儒教에 바탕을 둔 民族文化가 同質化 되었다고는 하나 対外的인 民族主義는 16世記 및 17世記에 있었던 두차례의 外侵(丙子胡乱과 壬辰倭乱)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었다.7)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民族主義는 外侵과 깊은 관련이 있다. 外侵을 予防하기 위한 対外的 結束의 必要에서 그리고 外侵이 있은 후에는 그것에 対抗하기 위한 精神的 支柱로서 民族主義가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비록 前者의 경우는 下向的(支配者에 의해서 主導되는)이고 後者는 上向的인 것(民族的 源泉을 갖는것)이었는지도 모르나 外侵威脅이 民族主義를 자극하여 왔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麗史的으로 보아 우리의 民族主義는 統一国家의 形成 또는 그 維持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어떤때(統一의 時期)에는 統一国家形成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렇지 않을 때는 安全保障이라는 側面에서 民族主義가 크게 일어나고는 하였다. 그러던 것이 日本에 의해서 主權을 빼긴 후에는 独立을 위한 排外的이고 抗争的인 民族主義로 변하여 갔다.

註7) 上掲書, P.13.

Ⅱ. 解放後의 統一指向과 民族主義

解放後의 統一을 指向한 民族主義의 전개는 크게보아 단계를 거쳐 변하여 왔다고 하겠다.

第一段階는 解放에서 46年까지이다.

즉 南北韓에서 美·蘇의 軍政의 종식되고 政治的 分割이 확정될 때까지에 전개된 民族主義이다. 이때의 民族主義는 共産主義라든가 反共主義라든가 하는 이데올로기로 덜 包裝된 것이 었다는데 그 特色이 있다. 이러한 社会 및 政治体制的인 理念이 民族主義와 별로 결부되지 않았던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解放後的인 民族感情이 作用했기 때문이다. 日本植民地下로부터 解放되자 政治指導者들과 一般大衆은 어느 의미에서는 感傷的 統一観과 民族主義的 意識을 가졌던것 같다. 美国과 소련의 힘이 韓半島에 作用하고 있다는 現実性과 이러한 民族感情은 調和되지 못하고 말았다. 現実性은 冷戦的인 이데올로기였는 바 이것이 感傷的 民族主義를 圧倒하여 감으로서 純粋民族主義理論은 現実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의 것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南北韓의 各各 美軍政과 蘇軍政이 우리 民族을 支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対内外的으로 힘의 源泉은 우리民族이 아니고 美国과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運命을 決定하여가고 있었다. 美·蘇의 軍隊進駐와 그에 따르는 軍政의 実施가 単一民族의 統一을 沮害하는 障壁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것을 해결할 者는 그들 自身이라고 美·蘇는 생각하고 있었다. 韓国이 分断을 美·蘇가 解決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때의 美軍政当局의 생각이었고 그에 따라「美·蘇共同委員会」

가 46年 10月에 열렸던 것이다.[8)]

美·蘇의 軍政과 그들의 統一努力은 마침내 兩側의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民族主義 또는 統一에 作用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가지 作用要因은 南·北韓에서 美·蘇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民族勢力과 支援을 받는 勢力間의 葛藤을 招來했고 그 結果는 政治的 이데올로기가 感傷的 民族主義를 누르게 되었다.

따라서 解放에서 48年까지의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의 歷史는 脱国際(脱理念)的 民族勢力이 国際性과 理念性이 가미된 民族主義 또는 勢力에 의해서 没落하는 過程의 歷史라고도 할 수 있다.

南韓에서의 脱国際的 民族主義와 그에 입각한 統一努力은 金九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바 南韓에서는 그러한 勢力의 統一努力의 적어도 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지속되어 왔고 그 힘도 매우 컸다.[9)]

이에 대해서 北韓에서는 그러한 勢力으로서 曺晩植등에 의해서 이끌어진 「朝鮮民主党」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바 勢力은 南韓에 비하여 빨리 몰락하였다. 共産主義의 本質的 属性인 国際主義가 이들 純粋民族主義者의 活動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第2段階는 1948年부터 60年前半까지이다. 統一과 관련된 이때의 民族意識은 적어도 그것이 政治指導者의 構想이라는 점에서만 본다면 理念化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 統一政策은 相対方을 吸収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北韓에 의해서 야기된 韓国戰争은 理念과 国際主義가 앞서는 吸収主義의 歷史事例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註8) The U.S.Department of State,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1943～1960) 1961 PP.4～5.

註9) 金九氏등이 建国直前인 1948年 4月 30日에 평양에서의 会談을 위하여 越北하는 事例가 있었다.

韓国問題의 国際性은 이미 分断(解放)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후의 歷史過程에서 美·蘇등의 影響으로 그것이 더욱 굳어져 갔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韓国戰争을 일으킨 것은 다른 의미에서 더욱 国際主義와 관련된다.

우선 그것은 소련과 北韓이 共産主義의 戰略 및 哲学인 国際主義에 입각한 行動의 結果로 나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戰争의 遂行過程에서 UN이 관계됨으로서 韓半島問題의 国際性은 汎世界的인 規模와 범위로 갖는 것이 되고 말았다. 또한 北韓의 国際主義와 理念의 為先性과 強化는 相対的으로 南韓에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켰다.

이러한 過程에서 南北間에는 民族的 同一体性이라든가 同胞愛라든가 하는 源泉的인 民族의 느낌보다도 敵対的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国際主義化의 強化에 의해서 결과된 同盟으로 同盟国民에 대한 사랑이 표면에 더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 나기도 하였다.

第3段階는 1960年代 後半이다. 이 時期에는 南北韓이 모두 60年代 前半까지를 기초로 하여 内実을 하여 오면서 그것을 위한 「主体性」高揚이라는 것에 의해서 民族意識을 심어 왔던 시기라고 보여진다. 물론 理念과 国際性이 완전히 除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理念의 固着化위에서의 内部指向的 民族主義가 統一의 전제로서 定立되어 갔다.

「主体性」이 강조된 内部指向的 民族主義(그것은 統一의 전제일 수도 있다)는 주로 自体力量의 整備와 同盟国의 政策変化—国際情勢의 変化에 따르는—에 의해서 그 기반을 굳혔다.

우리는 60年代 前半의 実積을 디딤돌로 하여 60年代 後半에는 급속한 経済成長을 하였다. 高度의 経済成長은 우리에게 自信을

가지게 하였다. 民族的 優越成과 잘살 수 있다는 希望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自信은 対外的인 主体意識을 낳게 한 要因이다. 한편 国際情勢의 흐름과 특히 美国의 事情은 우리에 대한 支援의 減少라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들 두개의 要因은 一次的으로 友邦에 대한 民族主義를 형성시켰고 主体性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内実을 위한 内部指向의 民族主義가 나왔다고 하겠다.

北韓도 中·蘇紛争과 美国과의 관계를 고려한 소련의 支援中断— 完全한 中断은 아니고 거의 中断되었음 — 등으로 「兄第国」을 강조하든 国際主義가 内部指向의 民族主義的인 口号로 바뀌었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自主性擁護」[10]는 唯一思想으로 変容되어 韓半島에서의 긴장을 야기하고 우리에 대한 威脅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統一問題와 관련시켜볼 때 오히려 1950年의 状況으로 後退시킬 수도 있는 要因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때의 国際主義가 民族自主性으로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우리를 武力에 의해서 吸収하려는 行動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状況이기 때문이다.

이 第3段階에서 国際主義보다 民族主義가 앞서고 그것이 統一의 전제로서 강조되었다고는 하나 陣営内的이고 地域内的인 限界性을 벗어 나는 것은 아니었다. 陣営内的, 地域内的인 内実이라는 面이 두드러 지고 全韓的인 超克을 하는 것일 수도 없었다는데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民族主義는 곧 統一과 直結되는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統一에의 過程을 밟는 하나의 時限的인 基盤이라는 意味가 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第4段階는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이 「8.15宣言」을 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北韓側에서 6.25와 같은 状況으로의

註 10) 노동신문, 1966.8.12 일자「자주성을 옹호하자」참조

後退 및 새로운 形態의 各種 挑発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南北間의 「競争」을 주창한 것이었다고 하겠고 그러한 前提가 받아 들여진다면 民族自決의 統一을 위한 努力이 可能할 것이라는 哲学을 表明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8.15宣言」은 統一과 관련한 民族主義的 意志를 表象하는 몇가지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

첫째 그것은 60年代 後半에 보였던 内実을 위한 主体性의 強調에서 한발짝 앞서는 것이었다. 自体内的 民族主義 또는 単位統合의 民族主体性이 外延化하여 統一로 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南北問題에 「競争」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서 1950年以来 南北에 있는 民族間에 内面的으로 意識化된 不相従과 敵対概念이 後退하기에 이르렀다.[11]

이것은 南北間에 흩어진 民族이 部分的으로라도 1945年의 意識状況에서 統一問題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意識의 契機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뜻을 지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提議는 統治者的인 政治文化圈内에 머무는 것이었고 北韓側에서 받아 들이는 姿勢가 統治者的인 属性을 지니고 있었다. 北韓側이 「8.15宣言」이 있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韓半島에 緊張要因이 될 수 있는 여러 行動을 한것을 보아도 받아 들이는 姿勢가 大衆的인 立場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그 結果로 緊張緩和를 꾀했던 이 提議는 실제로 결정적인 効果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提議方式이 統治者的인 것이었을 지라도 緊張要因과 人為的 障壁을 제거하므로서 民族的 悲劇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해서 그 提議가 大衆性을 가지는 民族主義였었지만 実効를

註 11) 閔丙天, 統一論議의 諸問題, 東国大学校 安保研究所刊, 安保研究 創刊号, 1972.P.56.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契機로 71年 8月 12日의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한 提議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韓国民族主義는 原型을 되찾기에 이르렀다. 비록 南北間에는 緊張要因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離散家에 대한 人道的인 問題解決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자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는 大衆性을 지니게 되었고 自決性과 主体性을 強化할 수가 있었다.

赤十字会談이 形式論理로 따진다면 人道的인 問題를 다루는 会談이지만 그것이 成功되면 統一에의 중요한 첫단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民族文化統合의 하나의 手段이 될 수도 있다.

赤十字予備会談이 進行되는 동안에 이루어진 「7.4共同声明」은 우리의 統一史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事件이다. 声明에서 나타난 「自主」,「平和」,「民族団合」等 統一의 三原則은 지금까지의 地域的 民族主義를 超克한 統一을 향한 民族主義의 表現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1945年以後의 三大歷史 事件中 12) 우리 民族으로 보아 가장 뜻있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1945年의 解放은 「他律」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1950年의 戦争은 国際主義와 結付된 民族的 悲劇을 가져온 「욕된 事件」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의 声明은 「自律」에 의한 民族運命決定이라는 점에서 民族史와 統一史에 있어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 声明은 戦争을 억제(中止)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大衆的 基盤위에서 民族主義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고 하겠다.

註 12) 三大事件은 1945年의 解放, 1950年의 戦争, 1972年의 7.4声明이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7.4共同声明을 계기로 하여 統一과 관련된 民族主義는 統治者的인 것과 大衆的인 것이 완전히 합치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러한 結合 및 団合에 의한 統一에로의 길이 트이고 있는 것이다.

四. 統一理念과 韓國的 民族主義

I. 民族統一의 Aporia

하이데거(Martin Heidegger,1889~)는 그 根本에 있어서 対象克服의 意志에 立脚하여 자각된 西洋 形而上学은 近代에 이르러 결국 技術의 文明으로 전개되고 그같은 技術의 文明은 美·蘇 양대진영의 対立을 자아내게 되어 여기에 이른바 世界의 밤의 時代가 펼쳐진 것이라 하고 있다.[1] 韓半島의 分断과 6·25動乱은 그같은 世界의 밤의 時代에 있어서 가장 悲劇的인 事例의 하나였던 것이라 하겠다.

美·蘇 양대진영의 対立은 核武器의 対立으로 전개되고 거기에서 이른바 恐怖의 均衡(balance of terror)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제 世界史는 드디어 그같은 恐怖의 均衡을 廻転軸으로 하여 일대 転換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歴史的인 潮流의 일대 転換은 1972년에 이르자 아시아에 있어서도 自由·共産 両陣営間의 対立의 해소와 共存을 재촉에 이르렀다.

이러한 世界史的인 転換過程에서 分断과 対立에서 民族分裂이 격화되어온 韓半島의 統一問題가 새로운 脚光을 받고 浮刻되기에 이른 것이다. 1972年의 7.4共同声明은 이와같은 歴史的인 状況에서 対立関係에 있는 南北이 民族的인 立場으로 되돌아 가서 自主的으로 또한 平和的으로 協商에 의거하여 統一을 이룩하자고 하는 共同声明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共同声明과 그것에 立脚한 南北赤十字会談 및 南北調節委員会의 会談等이 進行됨으로서 統一에의 길이 트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 그것을 検討할 必要가 있다.

北韓共産党은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 至上의

註 1) Martin Heidegger ; Einführung in die Metaphysik, 1953. S. 28.

理念으로 삼고 있으며, 그 理念의 実践을 그 절대적인 党是로 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唯物辯証法 및 唯物史観에 立脚한 闘争的인 理念이다. 이같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信奉하는 共産党은 브루조와 資本家 階級 및 그들이 지배하는 브루조와 自由国家와의 対立闘争에 있어서 歴史的인 最終의 승리를 予言하는 唯物史観을 確信하면서 唯物辯証法에 立脚하는 共産主義의 戦略과 戦術에 의거하여 이른바 無慈悲한 闘争을 감행해 왔다.

唯物辯証法은 헤겔(G.W.F. Hegel, 1707~1831)의 唯心辯証法을 계승한 辯証法이기는 하나, 헤겔 辯証法의 論理範疇인 定立(These) 反定立(Antithese), 綜合(Synthese)의 対立的 契機의 統一過程에 있어서의 이른바 宥和思想을 철저히 배격하고 対立的 契機 상호간의 무자비한 闘争에 의한 그 対立的 契機의 一方의 몰락과 다른 一方의 승리로서 새로운 統一段階가 実践的으로 쟁취된다는 思考方式에 立脚하고 있다. 그같은 무자비한 闘争의 論理인 唯物辯証法에 立脚한 共産主義의 전략과 전술은 本質的으로 革命手段에 의한 브루조와 資本家 階級의 박멸을 획책하는 것이며 또한 戦争에 의한 브루조와 自由国家의 倒滅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産党이 브루조와 資本家階級 및 그들의 自由国家와의 協商과 平和共存을 수락하는 것은 그 真意에 있어서의 妥協과 宥和를 위한 것이 아니라, 対立闘争의 새로운 形態로서 즉 戦略的인 의미에서 수락하든가 아니면 임시적인 전술로서 수락할 뿐이다.

共産党의 그같은 唯物辯証法에 立脚한 戦略과 戦術의 本質은 共産党의 実践의 歴史가 또한 立証한다. 東西陣営의 平和共存을 최초로 패턴화한 흐르시쵸프(N.Khrushchev)가 平和共存이란 共産主

義者에 있어서는 새로운 經濟的인 対立 闘争을 意味한다는 것을 明言한 바 있다. 또한 往年의 中国大陸에 있어서 共産党과 国民政府가 合作에 의하여 平和共存을 협정하였지만 그같은 合作은 共産党의 戦略에 불과했던 것으로서 未久에 共産党에 의한 국부군의 무자비한 소탕과 대만에의 축출이 감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記憶에 새롭다. 그리고 또 1973年 2月에 협정된 越盟과 越南의 休戦協定도 休戦以後에 있어서의 越盟의 軍事力 南派를 勘案한다면 印度支那半島에 있어서의 越盟과 越南의 平和的인 共存이란 결코 존속될 수 없을 것이고, 필경 또 다시 武力에 의하여 印支半島의 統一問題가 판가름날 것임은 明白하다.

이처럼 共産党의 戦略과 戦術의 本質은 그 唯物辯証法의 論理에 있어서 또한 그 実践의 歴史에 있어서 対立者인 相対方의 괴멸을 위한 무자비한 闘争을 감행하고 그 実践方法으로서 革命과 戦争의 手段을 취하게 되어 있고 또한 취해온 것이다. 共産党의 本質이 이와 같은 것이어늘 北韓共産党이 7.4共同声明에 동의하고 赤十字会談 및 南北調節委員会의 構成을 수락하였다 하여 과연 그들의 赤化統一의 基本戦略이 바뀐 것으로 判断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革命手段과 奇襲作戦에 의한 南韓 전복의 戦略이 抛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北韓共産党은 적어도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共産主義를 抛棄하지 않은 限 그들의 南韓 적화의 基本戦略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꿀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北韓 共産党은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共産主義를 抛棄하지 않는限 그 理念의 本質에 있어서 平和的인 협상에 応하여 南北統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 共産党이 7.4共同声明을 위시한 南北의 平和的 協商에 積極的으로 호응하게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南北의 緊張緩和를 仮装함으로써 対南 軍事行動에 있어서 決定的인 阻止役割을 하고 있는 駐韓 美軍의 철수를 促求하고, 日本과의 経済交流를 트며, 国際社会에 있어서 南韓과 対等한 位置를 獲得하고자 하는 戦術의 変動인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여 北韓 共産党이 7.4共同声明 以来로 対南 平和協商에 積極的인 자세를 취하게 된것은 그들이 共産主義 理念에 立脚한 적화통일의 基本戦略 그리고 또 그 実践의 手段으로서 革命과 戦争의 手段을 抛棄한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그같은 戦略을 効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戦術의 変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南韓은 어떻게 統一을 達成하려 하고 있는가. 南韓은 7.4共同声明以来 그 政治体制를 변혁하고 経済建設을 서두르고 있다. 南韓은 資本主義 体制에 立脚하여 北韓을 압도하는 経済力을 育成함으로써 南北統一을 達成하려는 政策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輸出額 100억불, 国民所得 1,000불을 目標로 하고 있는 1980年代에 이르면, 北韓을 압도하는 経済力이 建設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統一의 길이 트일 것으로 믿고 있다. 그같은 方向에서 우선 第1段階로 南北의 平和的인 協商에 의하여 南北交流의 길을 틈으로서 民族的인 융합을 통한 이른바 民族統一에의 길을 점차로 도모하고, 나아가서 第2段階로 経済力이 北韓을 압도할 1980年代에 이르러 最終的으로 南北의 政治的 統一을 達成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南韓의 統一戦略은 곧 経済力을 育成하여 北韓을 経済的으로 압도함으로써 統一을 이룩하자는 戦略은 北韓이 萬若에 南韓과 同一한 資本主義의 経済体制라면 効果的인 統一戦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부강한 經済力의 建設로서 北韓経済를 압도하고 隷属시킴으로서 北韓의 経済的인 屈服下에 統一이 達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資本主義 経済体制가 아닌 共産主義 経済体制일 뿐더러 오히려 反対로 바로 그같은 資本主義 経済体制를 타도하는 것을 그 唯一至上의 目的으로 삼고 있는 共産主義 理念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共産党은 南韓의 資本主義 経済体制가 부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座視하지 않을 것이고 부강하게 성장하기도 전에 革命과 戦争의 手段으로서 그 파괴를 劃策할 것이다. 또한 南韓의 이른바 民族的 統一을 통한 政治的 統一이라는 二段階에 걸친 漸次的인 統一戦略도 北韓의 革命과 戦争이라는 統一戦略 때문에 実現될 可能性이 희박하게 될 것은 明白한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南韓의 統一戦略은 北韓共産主義者의 攪乱戦略때문에 統一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統一戦略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南北의 統一戦略을 살펴는데 北韓이 共産主義体制로 나아가고, 南韓이 資本主義体制로 나아가는 限 즉 南北이 対立 鬪争的인 異質的인 이데올로기 体制를 強化해 나가는 限 平和的 南北統一이란 達成될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것을 認識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사실 平和的인 南北統一이란 이룩될 可能性이 희박한 難問題 즉 아포리아(Aporia)인 것이다.[2] 우리는 여기서 南北統一이란 이룩될 可能性이 희박한 아포리아이고, 그같은 아포리아를 아포리아로서 認識한다는 것 그 自体가 아주 重要하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한다.

註 2) Aristateles의 形而上学에서 나오는 Aporia는 通路가 없다는 것을 意味하는 a-poros에서 이루어진 말로서 難問을 의미하고 있다.

南北統一의 아포리아를 아포리아로서 認識하지 않고, 実現될 可能性이 희박한 統一의 戰略들을 마치 実現될 可能性이 있는 統一戰略처럼 仮装한다면 첫째, 그같은 虛構의 統一戰略들 때문에 真正한 統一戰略이 은폐될 것이고 둘째, 虛構의 統一戰略들은 国論의 分裂과 国力의 浪費를 招来하게 되며 세째, 그같은 虛構的인 統一方向은 終局에 가서는 나라를 망치게 되는 무서운 結果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平和的인 南北統一이란 이룩될 可能性이 희박한 아포리아임을 認識하고 実現 可能性이 없는 그 모든 虛構로서의 統一戰略論을 排除한다는 것이 重要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革命과 戰争의 手段을 排除한 平和的인 南北統一은 이룩될 可能性이 희박한 아포리아인데도 불구하고 現在의 歷史的인 状況과 地政学的인 位置를 勘案하여 南韓은 오직 다만 그같은 平和的인 南北統一의 길만을 模索해야 할 宿命에 처해 있다는 것이 바로 南韓에 있어서의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反対로 北韓은 南北統一에 있어서 革命과 戰争의 手段을 排除하고 있지 않았을뿐 아니라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오히려 그같은 革命과 戰争戰略을 強化하고 그 효율적인 実践을 위하여 南北의 平和協商을 利用하며 南韓駐屯의 美軍의 撤收를 促求하고 있는 것이다.

美·蘇 및 美·中共의 격렬한 対立이 平和的인 共存으로 전환하여 越南 및 아시아에서 美国勢力이 撤收를 시작하고 世界가 多極化하는 그러한 国際状況에 있어서 美軍의 韓国駐屯이 永続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데, 美国勢力을 代行할 日本이 또한 軍事的으로는 中立的인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앞으로의 南韓의 安全保障은 날이 갈수록 不安함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같이 생각한다면 南北対立과 그 統一問題에 있어서 앞으로의

歷史時間은 南韓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두운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歷史時間이 南韓에 不利하게 기울어지기 전에, 平和的인 南北統一이란 이룩될 가망성이 희박한 아포리아임에도 不拘하고 그러나 그 아포리아를 돌파하여 統一의 길을 틀 수 있는 어떤 高次的인 平和統一의 戰略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II. 統一理念의 定立

西欧에서 시작된 近代産業主義는 이데올로기의 対立이란 해결할 수 없는 矛盾을 자아냈다. 그것은 資本主義와 共産主義라는 이데올로기의 対立이다. 資本主義는 브루즈와 資本家階級의 이데올로기이며 共産主義는 프롤레타리아 労動者階級의 이데올로기이다.

브루즈와 階級은 封建体制를 打倒하고 이른바 産業革命을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近代的 生産体制 즉 資本主義体制를 확립한 社会勢力으로서 그 歴史的 공적은 빛난다. 이러한 브루즈와階級의 이데올로기는 自由主義인데, 그와같은 自由主義의 哲学的 基礎를 確立한 思想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헤겔(G.W.F. Hegel)의 이른바 自由史観이다. 헤겔에 의하면 精神의 本質인 自由야말로 歴史의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이다. 人類歴史는 自由의 実現을 目的으로 하여 辯証法的 三段階 즉 1人의 自由만이 실현되는 아시아적 専制政治体制, 몇사람의 自由가 실현되는 그리스, 로마의 貴族政治体制, 萬人의 自由가 실현되는 게르만界의 立憲君主政治体制로 展開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自由主義의 이데올로기下에서 이룩된 近代資本主義社会는 資本家 브루즈와階級에 있어서는 地上楽園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階級에 대하여서는 失業과 기아의 問題때문에 그다지 달갑지 못한 社会가 되었다.

이와같은 状況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의 이데올로기로서 형성된 것이 마르크스의 共産主義였음은 주지하는 事実이다. 마르크스의 共産主義는 헤겔의 絶対精神의 辯証法哲学에 対立하여 辯証法的 唯物論哲学을 그 이데올로기의 基本哲学으로서 定立했다.

마르크스는 그같은 변증법적 唯物論에 立脚하여 헤겔의 自由史観

에 대립한 唯物史観을 定立하였으니, 그것은 브루조아 階級의 没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楽園으로서의 共産主義社会의 実現을 唯物弁証法의 論理에 立脚하여 전개한 史観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資本論은 自由 資本主義社会의 矛盾과 破綻 및 没落의 必然性을 経済学의 영역에서 변증법적으로 분석하고 입증한 理論이었다.

以上에서 論한 바 브루조아 資本家階級과 프롤레타리아 階級의 이데올로기的인 階級対立과 闘争은 드디어 国境을 넘어서 世界史的인 規模로 拡大되어 第二次大戦의 終決과 더불어 美·蘇 両大陣営의 격렬한 対立闘争으로 展開된다. 그리하여 分裂된 両大陣営 사이에는 可恐할 無底의 深淵(battomless abyss)이 파였으니 여기에 人類의 没落을 가져올 無(nichts)가 開示된 것이다.

이와같은 世界史의 矛盾的인 展開過程에서 韓民族은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対立闘争에의 참여를 強要당하였으니 国土의 分断과 民族의 이데올로기적인 分裂対立 및 6·25動乱의 民族相残이 바로 그것이다.

韓国民族은 他律的이기는 하였으나 그 歴史的인 宿命으로서 近代西欧産業主義의 모순으로서 전개된 이데올로기의 対立을 스스로의 矛盾対立으로서 받아 드려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矛盾対立을 超克하지 않고서는 民族統一을 이룩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참으로 韓国民族은 近代 産業主義의 罪過로서 빚어진 이른바 植民地主義의 虐待 밑에서 苦難을 겪었을 뿐 아니라 또 바로 그 近代 産業主義의 모순을 스스로의 모순으로 삼아 그 解決을 強要당하고 있으니 十字架를 등에 지고 世界史의 罪悪과 모순을 贖罪하기 위하여 골고다의 피의 언덕에서 허덕이는 民族이 된것이다.

그러나 世界史의 罪悪과 모순을 贖罪하고 이데올로기 対立의 아포리아를 해결하여 民族統一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世界史

를 文化的으로 先導하는 栄光된 民族이 될수도 있을른지 모른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던 弱少民族이 강대국을 圧倒하여 번영하며 또한 辺境地帯의 後進国家가 文化의 中心地域을 누르기에 이른다는 逆説(Paradox)이 世界史의 進行過程이기 때문이다.[3)]

그렇다면 世界史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에서 빚어진 無底의 深淵은 어떻게 超克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無底의 深淵에서 開示된 無는 어떻게 実破될 수 있을 것인가.

「마루틴 하이데거」는 美·蘇의 이데올로기 対立은 그 基本에 있어서 征服意志에 立脚한 프라톤(Platon)以来의 西洋形而上学에 淵源하는 것이라 하고 西洋形而上学의 超克을 問題삼고 있다.[4)]

이같은 「하이데거」의 哲学的 自覚에서 생각한다면 世界史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에서 開示된 無는 西洋形而上学을 超克한 새로운 思想과 真理가 自覚되지 않는 限 克服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無底의 深淵에서 開示된 無는 새로운 思想의 創造없이는 克服実破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왜냐하면 無를 克服하고 実破하는 길은 오직 創造의 길 以外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돌이켜 생각컨대 人類의 歴史에는 그들의 죽음을 意味하는 無가 여러차례에 걸쳐 開示된 바 있고, 人類는 그같은 無가 歴史的으로 開示되었을 때 언제나 創造의 活動으로서 그같은 無를 克服 実破하여 새로운 繁栄을 이룩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아득한 原始時代 人類가 자연환경과 対立에 있어서 환경에의 適応力을 상실하여 環境과의 対立이 세차지고 그같은 세찬 対立의 사이에 人類의 죽음

註 3) Richard Hare ; Pioneers of Russian Social Thought, P. 247.

註 4) Martin Heidegger ; Was ist Metaphysik ? Einleitung.

을 意味하는 無가 開示되었을 때 人類는 도리어 자연환경을 改造함으로써 環境과의 対立을 統一하여 살아 나가는 方法 즉 文化的인 生活方式을 創造함으로써 그같은 無를 克服 突破하고 새로운 번영을 이룩했던 것이다. 가까이는 封建時代 末期 封建貴族階級과 農奴階級間의 分裂対立이 극심하여 封建社会의 종말을 意味하는 無가 開示되었을 때 브루조아 資本家階級이 등장하여 새로운 資本主義社会를 創造함으로써 그같은 無를 克服하고 찬란한 文明과 繁栄을 가져 왔던 것이다.

이와같이 歴史를 본다면 人類 歴史의 発展過程을 헤겔 自由史観처럼 단순히 自由의 발전과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며 또한 마르크스 唯物史観처럼 단순한 経済的인 生産力의 発展過程으로만 把握해서도 안되고, 根本的으로는 人類의 歴史를 人類生命의 創造的인 発展過程으로 自覚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創造的 活動을 重視하여 人類歴史의 発展을 把握한 学者들 중에는 벨그손(Henri Bergson), 토인비(Arnold J.Toynbee 1889～)等이 있는데 특히 社会科学의 分野에 있어서 政治活動을 많은 社会 勢力들간의 分裂対立을 統一하여 새로운 生活秩序를 創造하는 活動으로서 把握한 学者가 있으니 그는 바로 知識社会学 및 政治社会学을 창시한 칼·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이다.[5)]

以上과 같은 創造的인 史観의 視座에서 世界史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의 사이에서 開示된 可恐할 無를 어떻게 克服하고 돌파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직 対立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生活体制와는 다른 새로운 生活体制를 創造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

註5) Karl Mannheim ; Ideology and Utopi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100-104.

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生活体制의 創造에는 새로운 哲学과 科学이 自覚되고 탐구되어야 하며 또한 새로운 志向의 社会勢力이 形成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같은 새로운 哲学과 科学은 다음 項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새로운 志向의 社会勢力에 관하여 論하고자 한다.

中世 末期 封建貴族階級과 農奴階級 사이에서 그 当時 새로운 生活体制를 創造할 社会勢力으로서 브루즈아 資本家階級이 대두하였다는 것은 이미 論하였는데, 지금 近代의 終幕期에 있어서 브루즈아 階級과 프롤레타리아 階級의 사이에서 歷史的인 새로운 生活体制를 창조할 社会勢力이 또 다시 形成되고 있으니 그 社会勢力은 이른바 인텔리겐챠 新中間階層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인텔리겐챠의 新中間階層은 近代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을 초극하여 計劃된 福祉社会構造의 高度 知識社会를 建設하려 하고 있다는 그 志向을 여기서 부언해 두고자 한다.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世界史的인 이데올로기의 対立과 거기서 開示된 無는 새로운 生活体制의 創造로서 克服 突破되는 것이라 할 때 韓半島에서 展開된 同一한 構造의 이데올로기 対立과 無의 開示 및 거기에 따른 南北統一 問題의 아포리아도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対立을 超克한 새로운 生活体制의 創造로서 비로소 克服할 수 있으며 또한 解決할 수 있는 問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対立을 超克한 새로운 生活体制는 近代的인 이데올로기의 生活体制 보다는 그 次元에 있어서 높은 体制일뿐 아니라 歷史的으로는 世界史의 潮流에 앞서는 未来志向의 前進的인 体制이다.

이같은 高次元일 뿐만 아니라 未来志向의 生活体制를 創造的으로 建設해 간다면 低次元의 共産主義 이데올로기 体制는 対立闘争할 相対者의 契機를 発見할 수가 없게 되어 歷史的인 時間의 経過와

더불어 스스로 解体와 同化作用을 일으켜서 여기에 마침내 統一은 平和的 順理的으로 達成되기에 이를 것이다.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地政学的인 見地에서 본다면 現在의 이데올로기 対立의 次元에서 南北이 鬪争을 계속할 경우 大陸의 共産大国들을 등에 업은 北韓에 対하여 앞으로의 歷史的 時間은 점차로 有利하게 作用하겠끔 되어 있다. 그러나 南韓이 만약에 対立的인 이데올로기 体制를 超克한 새로운 体制를 創造한다면 地政学的인 不利性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歷史的 時間은 오히려 南韓에 有利하게 作用하게 될 것이다.

以上에서 南北統一의 아포리아를 解決할 唯一한 길은 対立的인 이데올로기 体制를 超克한 새로운 体制를 創造하는데 있다는 것을 論하였는데 새로운 体制의 創造에는 그 体制의 建設에 앞서서 建設의 理念이 創造되어야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高次元의 体制建設에는 理念의 先導가 必須不可欠한 것인데 하물며 韓国같은 後進社会에는 計劃된 理念의 先導가 더욱 必要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생각한다면 南北統一問題에 있어서의 가장 基本的인 問題인 同時에 또한 先決的인 問題는 対立的인 이데올로기를 超克한 統一理念의 創造와 그 定立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Ⅲ. 創造的 民族主義

美・蘇의 兩大陣営의 이데올로기 対立은 1950年代에서 60年代에 이르자 可恐할 核武器의 対立으로 展開되어서 그 対立 사이에는 人類의 破滅과 総体的인 没落을 가져올 전율할 無가 開示된 것이다. 이와같은 空前의 事態에서 兩大陣営間에는 人類의 破滅을 각오하지 않는 限 戰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恐怖의 均衡이 이룩된 것이다. 그같은 恐怖의 均衡을 廻転軸으로 하여 兩大陣営은 戰争을 抛棄하고 平和共存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나아가서 戰争을 志向하여 편성된 兩大陣営은 드디어 그 編成의 解体를 시작한 것이다.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陣営 편성의 解体는 여기에 兩極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을 超克한 이른바 새로운 民族主義(Neo-nationalism)의 多極化 秩序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多極化秩序의 理念인 新民族主義는 兩極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의 사이에서 開示된 無의 深淵을 突破하여 創造되어 나온 民族主義로서 兩極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을 超克하여 民族社会를 基盤으로 하는 後-近代的인 새로운 生活体制를 創造하려는 志向의 創造的인 民族主義이다.

이와같은 新民族主義는 戰争抛棄의 이른바 恐怖의 바란스를 契機로 하여 形成된 民族主義이므로 종전의 專制主義時代의 重商主義的 民族主義 또한 帝国主義時代의 파시즘的 民族主義등 侵略主義的인 民族主義들과는 그 類를 달리하여 일체의 侵略戰争을 否認하고 国際的인 平和共存을 志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新民族主義는 새로운 生活体制의 建設에 있어서도 종전의 낡은 民族主義들과는 類를 달리하고 있다. 즉 종전의 民

族主義가 有機体說에 立脚하여 個人의 実存的인 独自性을 無視하고 專制的 내지 独裁的인 政治形態를 취한데 対하여 新民族主義의 創造的 民族主義는 無의 基盤을 자각한 個人의 実存性을 존중하고 実存 상호의 自由로운 民主主義的인 統合過程에서 새로운 生活体制를 創造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은 民主主義的 政治形態를 志向하고 있다. 이같은 新民族主義의 社会勢力基盤은 第二項에서 논했듯이 인텔리겐차의 新中間階層인데 그들은 無의 基盤위에서 不安과 孤独을 자각하고 있는 群衆들이다.[6]

近代的인 生活体制의 終末을 의미하는 이데올로기 対立의 사이에서 개시된 無는 또한 새로운 社会的 勢力으로서 新中間階層의 基盤으로서 자각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無는 実存的인 個人 自由의 基盤으로서 個人에 대해서는 権力의 支配가 排除되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生活体制는 創造的인 民主主義의 原理에 立脚하여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같은 無는 또한 実存的인 個人間에 資本의 支配가 배제됨으로서 経済的, 社会的인 平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즉 그같은 無는 自由와 同時에 平等의 基盤으로서 自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

註 6) K. Young ; Hand Book of Social Psychology 1946 P.408.

註 7) 無 (Nichts) 는 여태까지 다만 観照的으로 자각되어왔는데, 論理的으로는 否定의 根拠로서 자각되었으며 (朴鍾鴻著 ; 否定의 研究参照), 実存哲学 및 政治心理学에 있어서는 不安과 孤独의 근거로서 자각되고 또한 仏教에 있어서는 空의 근거로서 자각되었다. 그러나 無를 実践的으로 자각한다면 空間的인 分裂 対立과 存在者의 亡滅의 근거로서 또한 그같은 亡滅을 克服하는 創造의 根拠로서 자각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社会哲学的으로는 無는 実存과 実存과의 사이에 連続的인 紐帯의 社会的支配関係가 非連続的으로 단절되어서 없어졌음을 意味함으로서 自由와 平等의 진정한 哲学的인 근거로서 자각된다. 이같은 実存的인 自由와 平等을 보장하는 政治社会形態가 바로 民主主義에 입각한 福祉社会体制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近代的인 이데올로기의 生活体制의 終末과 더불어 無의 基盤위에서 不安과 孤独을 自覚한 新中間階層은 創造的 民族主義 내지 国民主義의 基盤위에서 保障되는 이른바 創造的인 大衆民主主義의 政治形態를 志向하며, 또한 実存的인 平等이 国家的으로 保障되는 福祉社会形態를 志向하고 있다.

이처럼 創造的 民族主義 내지 国民主義의 社会基盤위에서 建設되는 大衆民主主義의 福祉社会의 生活体制는 無의 自覚위에서 이룩되는 実存的 自由의 創造的인 結合을 그 生活原理로 삼는 生活体制로서 資本과 不平等化 原理가 支配하는 近代的인 브루조아 社会의 生活体制보다도 또한 実存的 自由가 無視되고 抑圧되는 프롤레타리아 社会의 共産主義 生活体制보다도 高次元의 生活体制일 뿐만 아니라 또한 歴史的으로 未来志向의 現代的인 生活体制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韓国의 統一理念의 問題를 論한다면 韓国은 위에서 説明한 바 創造的인 民族主義를 그 統一理念으로서 定立해야 하는 것이니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創造的 民族主義는 近代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을 克服 統一한 새로운 体制로서 大衆民主主義의 福祉社会体制 建設을 志向하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 論하였지만 韓国의 南北統一을 現 時点의 低次元的인 이데올로기 対立의 立場에서 一方이 他方을 戦争의 手段으로써 強要하는 方法을 배제하고 오직 平和的으로 統一하고자 한다면 그같은 対立的인 이데올로기를 克服 統一한 創造的 民族主義의 高次元 且 未来志向的인 生活体制밖에는 統一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이 平和的인 統一을 意図하는 限 統一理念으로서는 創造的 民族主義를 定立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南北統一의 理念은 南北이 이데올로기的으로 分裂 対立하

기 以前의 南北民族에 共通한 政治文化의 伝統에 뿌리 박은 理念이어야 하는데 바로 그같은 共通的인 政治文化의 伝統은 三·一運動以来의 民族主義인 것이다. 三·一運動의 韓国民族主義는 日本帝国主義와의 対自状態(Fursichsein)에서 形成된 民族主義로서 韓国이 日本帝国에 대해서 또한 世界列強에 대해서 그 스스로의 民族正気를 吐露하였던 것이다. 韓国民族의 民族正気는 世界 各 民族의 国際社会에 있어서의 自由와 平等이 바로 道義의 世界秩序임을 주장하고 韓国民族의 自主 独立의 正当性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이같은 韓国民族主義는 三·一運動以来로 民族의 心田깊이 뿌리 박혀서 韓国民族의 近代的인 政治文化의 土台가 되고 또한 伝統이 되어온 것이다. 第二次世界大戦의 終戦과 더불어 韓国民族의 分裂과 이데올로기 対立의 強要는 그같은 伝統的 民族主義의 社会底面에의 退行을 또한 不得己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民族의 分裂과 이데올로기的인 対立闘争은 民族社会에 죽음의 고랑을 파고 民族破滅의 無를 開示한 것이다. 이에 民族社会의 底面깊이 沈潜했던 韓国民族主義의 民族正気가 또 다시 그같은 民族破滅의 無를 超克 突破하고자 民族의 統一을 이룩할 統一理念으로서 스스로를 創造的으로 顕現한다는 것은 歴史的인 必然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韓国의 民族主義는 지금 이 歴史的 時点에서는 그 歴史的인 必然性에 立脚하여 近代 유럽 産業主義의 矛盾으로서 分裂된 이데올로기의 対立을 그 스스로의 民族正気에서 創造的으로 超克 統一한 새로운 高次的이며 未来志向的인 生活体制로서 具体化될 段階에 이르른 것이다.

이같이 하여 韓国民族主義가 그같은 새로운 生活体制 理念으로서 創造的으로 具体化되어 民族統一 理念으로서 定立된다면 그같은 民

族主義는 南北同胞의 心田깊이 자리잡은 民族正気의 顕現이기 때문에 南北同胞의 呼応을 얻게 되는 것이고 外来的인 이데올로기의 対立을 克服한 民族의 統一은 필경 達成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国의 民族統一의 理念은 韓国民族의 政治文化의 伝統이며 또한 그 民族正気의 発露인 民族主義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세째로 地政学的으로 보아 現在 南北으로 分断되어 両大陣営의 프론티어로서 자리잡고 있는 南北韓은 이른바 辺境地帯的 位置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分断된 南北韓이 統一될 경우 그같은 統一韓国은 辺境地帯的 位置에서 벗어나서 地政学的으로 이른바 中央的 位置에 서게 되는 것이다. 즉 美·日의 海洋勢力과 蘇·中共의 大勢力의 中央에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地政学的으로 中央的 位置에 자리잡은 国家는 강력한 主体性이 確立되지 않으면 그 国家의 運命을 保全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中央的 位置에 있는 国家가 主体性이 強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国家들의 波動에 말려 들어 그 安定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強大国에 의하여 잠식을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独逸과 러시아의 中央的 位置에 자리잡고 있는 폴랜드가 수차에 걸쳐 그들 強大国들에 의하여 잠식 또는 併合당하여 왔다는 것이 그 例다.

이같은 地政学的인 고려에서 韓国이 統一될 경우에 中央的 位置로 転換될 것이므로 韓国의 統一理念은 強力한 主体性을 갖춘 理念이 아니면 統一後에 있어서 그 国基를 保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国의 統一理念은 強力한 主体性을 갖춘 理念이어야겠는데 그같은 強力한 主体性을 갖춘 理念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오직 民族主義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実証的인 例를 独逸에서 볼 수 있는데 유럽의 中央的 位置에 자리잡은 独逸은

주위의 国家들에 対하여 君臨하면서 호령하였지만 그 主体性의 根基는 헬다, 휘이테, 헤겔 등의 이른바 独逸観念論 哲学에 입각한 게르만 民族主義였음을 주지하는 사실이다.

한 民族이 그들의 民族哲学을 核心으로 하여 民族共同体 意識에서 団結할 때 그들의 그 主体性은 주변의 어떠한 強大国들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지만 그들이 선진 文化国의 政治理念에 傾斜되어서 民族 共同体 意識을 망각할 때에는 그 主体性은 상실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国基를 保全할 수가 없는 사태마저 초래한다. 旧 韓国말의 韓国이 그 좋은 歴史的인 例이다. 清国, 러시아 및 日本에 둘러 싸였던 旧 韓国의 支配層은 李氏朝鮮 五百年의 전통적인 事大主義의 意識構造위에서 向内的으로 民族의 主体性 확립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向外的으로 주변 強大国들의 힘을 빌려서 国基를 保全하려 발버둥 쳤던 것이다. 이같은 向外的인 事大主義 姿勢에서 国内의 指導層은 三派로 分裂되어 三巴戦을 벌리게 되고 주변 強大国들의 勝負에 있어 日本이 승리하게 되자 主体性이 상실된 旧 韓国은 힘없이 勝者 日本의 植民地로서 스스로의 国家主権을 譲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韓国이 統一된다면 統一韓国은 또 다시 海洋勢力과 大陸勢力의 四大国에 의하여 둘러 싸이게 될것이다. 혹시 統一韓国에 民族主義에 입각한 強力한 主体性이 確立되지 못하고 向外的인 事大主義 指導層들의 四巴戦이 벌어지게 된다면 殷鑑은 멀지 않으니 또 다시 国基는 허물어지고 말것이다.

그러므로 統一후의 韓国까지 견양하는 民族統一 理念은 民族主義여야 하겠고 그 民族主義는 強力한 主体性을 갖추기 위하여 그같은 主体性의 核心으로서 独逸의 게르만 民族主義처럼 民族主義의 哲学을

확립해야 한다.

以上으로서 韓国의 南北統一理念은 対立的인 이데올로기를 統一해야 한다는 理由에서 또한 그같은 統一理念은 民族的인 政治文化의 伝統에 土台를 두어야 한다는 理由에서 그리고 또 그같은 統一理念은 統一후의 地政学的인 位置를 勘案해야 한다는 理由에서 民族主義의 理念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究明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結論的으로 그같은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는 그 精神的 核心으로서 哲学的 土台위에 確立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Ⅳ. 民族의 哲学과 統一

韓半島 統一理念의 定立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問題는 近代世界의 이데올로기적 対立의 分裂에서 開示된 無의 超克方向으로서 顕現되고 있는 創造的인 民族主義의 哲学을 理論的으로 자각하는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統一理念으로서 民族主義의 哲学이 理論的으로 確立되지 않는다면 첫째로 対立的인 이데올로기哲学의 理念体系위에서 向外的 遠心的으로 分裂되어 있는 南北同胞를 向内的 近心的으로 収斂 統一할 民族의 精神的 主体性이 그같은 体系化된 哲学의 自覚없이는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統一体制로서 건설할 創造的 民族主義에 입각한 高次元的 且未来志向의 새로운 生活体制의 創造에 있어서 그 体制創造를 지도하는 科学理論이 그와같은 哲学의 土台없이는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統一理念의 토대로서 民族主義哲学의 理論的인 自覚을 試図하고자 하는 것이다.

近代産業主義의 모순으로서 전개된 이데올로기의 分裂과 対立의 底面에서 開示된 無를 知識社会学의 立場, 즉 知識의 存在被拘束性 (Seinsgebundenheit)[8]의 視座에서 생각한다면 그같은 無는 이미 実存哲学의 니힐리즘(Nihilisn)에서 自覚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엘케골(Sören A. Kierkegoard 1813-1865)은 近代世界의 合理的인 体系의 哲学的인 表現으로서 간주되는 헤겔의 辯証法的인 合理性의 体系에 包摂되지 않는 非合理的인 例外者(Ausname)로서 実存을 自覚하였다. 즉 実存은 近代世界의 合理的 基盤에서 疎外

註8) Karl Mannheim; Ideology and Wopia. P.69

되어 無(Nichts)에 直面한 者로서 不安과 孤独속에 스스로를 自覚한다. 이와같은 実存의 니힐리즘은 니이체(F.W.Nietzsche 1844-1900)哲学에 이르러 近代文化를 송두리채 否認하는 니힐리즘으로 展開된다.

그러나 그와같은 니힐리즘의 徹底化와 無의 심수한 自覚은 하이데거 哲学에 이르러서 이룩된다. 하이데거는 近代文化 뿐만 아니라 유럽文化의 土台가 되고 있는 西洋形而上学을 総体的으로 否定하는 철저한 니힐리즘에 도달하고 심수한 無의 自覚에서 全然 새로운 世紀의 文化의 根拠로서[9] 이른바 存在(Sein)를 自覚하기에 이른다. 無와 더불어 있는 存在 곧 언제나 無의 面紗布를 쓴 자인은 伝統的인 形而上学때문에 陰蔽되고 忘却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無의 베일을 쓴 자인야 말로 모든 存在者의 故郷이며 또한 그 真正한 根源이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와같이 하여 近代世界의 종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伝統的인 西洋文化의 総体的인 否定을 거쳐 새로운 世界의 根源으로서 자인을 自覚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와같은 새로운 世界의 根源으로서의 자인은 神秘的 宗教的인 自覚으로 기울어지고 実践的인 世界의 根源으로서의 自覚은 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하이데거 처럼 世界의 根源을 時間性의 面에 기울어져서 接近할 경우에는 그 宗教的 超越的인 面만이 自覚될 뿐이다. 그러나 世界의 根源을 時間性과 同時에 空間性의 面에서 接近할 경우에는 그 実践的 現実的인 面이 自覚되기에 이른다. 이와같이 하여 그 実践的 現実的인 面을 自覚한다면, 無는 단순히 不安, 孤独의 근거로서만 자각되는 것이 아니라 空間性의 分裂対立의 근거로서 自覚

註9.) Martin Heidegger; Holzwege. S.300

되는 것이고 자인은 그와같은 分裂対立의 統一活動의 근거로서 自覚되기에 이른다.

無의 근거에서 分裂対立한 空間性의 자인에 의한 統一活動은 無를 超克하고 돌파하는 活動으로서 그것은 바로 創造의 活動인 것이다. 이처럼 無의 면사포를 쓴 자인이 無를 돌파해서 顕現한다는 것은 언제나 創造의 活動인 것이므로 하이데거가 世界의 根源으로서 自覚한 無의 面紗布를 쓴 자인은 時間性과 同時에 空間性에 있어서 自覚한다면 즉 実践的 現実的으로 自覚한다면 創造의 活動 그 自体인 것이다.

이와같은 創造의 活動은 또한 創造的 生命의 顕現이라 하겠으므로 世界의 根源은 究境 創造的 生命으로서 自覚되는 것이라 하겠다.

世界의 根源을 生命으로서 自覚한 哲学을 수지하는 바와 같이 벨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의 哲学이다. 벨그손의 生命哲学은 生命의 創造的進化의 過程을 아름다운 行進曲처럼 展開하고 있다. 그러나 벨그손의 生命哲学은 空間性의 근거인 無를 심각하게 自覚하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空間的인 分裂対立과 그 実践的인 統一活動으로서의 非連続的 비약적으로 이룩되는 創造의 深刻한 構造를 自覚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벨그손의 創造的進化의 過程은 한갖된 물의 흐름과 같은 連続的인 生命過程에 不過한 것이 되고 있다. 無의 深刻한 自覚을 媒介로 하여 自覚되는 創造的 生命의 実践的인 創造의 過程을 밝힌다면 世界의 根源으로서의 創造的 生命이 스스로의 베일인 無를 媒介로 하여 顕現할때 精神과 物質로 分裂対立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정신과 물질을 絶対視함으로써 唯心論의 哲学体系가 展開되는가 하면 反対로 또한 唯物論의 哲学体系가 전개되었다. 하이데거는 西洋形而上学을 規定하는 根本的인 思惟는 모든 存在者를 스스로의 主観앞에 対立시켜서 認識하

는 이른바 対象的思惟라 하고 있다.[10])

이같은 対象的思惟에 있어서 思惟하는 主觀을 為主로한 主觀主義의 形而上学의 体系가 이룩되는가 하면 반대로 思惟의 対象을 為主로한 客觀主義의 形而上学의 体系가 이룩되었다. 主觀主義의 形而上学의 体系가 唯心論의 体系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면 客觀主義의 形而上学의 体系는 唯物論의 体系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西洋形而上学은 그와같은 対象的思惟에 입각하여 왔기 때문에 그같은 主觀과 客觀의 근거로서의 世界의 심수한 根源인 자인(Sein)은 언제나 은폐되고 忘却되는 運命에 있었다는 것이다. 対象的思惟는 모든 存在者를 主觀앞에 세워서 対象으로서 認識하는 精神姿勢인데 그와같은 精神姿勢는 根本的으로 모든 存在者를 克服하려는 意志에 底礎하고 있는 것이라 하고 그러한 克服의 意志에 입각한 形而上学은 구경 科学과 技術로 展開되어 오늘날 可恐한 美·蘇의 対立을 자아 냈다는 것이다.[11])

위에서 論했듯이 오늘날 가공할 美·蘇의 이데올로기 対立은 無의 深淵을 開示하고 그와같은 無의 深淵의 開示와 더불어 그것을 契機로 하여 形而上学에 의하여 은폐되고 망각되어온 자인(Sein)이 곧 創造的 生命이 顯現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事態를 知識社会学의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唯心論과 唯物論의 形而上学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의 分裂対立이 美·蘇의 対立을 媒介로 하여 極限에 도달하고 그 分裂의 사이에 無의 深淵이 開示됨을 契機로 하여 唯心論과 唯物論의 근거인 創造的生命이 顯現하기에 이르고 그와같은 創造的 生命에 입각한 네오·내쇼널리즘 즉 創造

註10) Ibid. SS. 224-226

註11) Martin Heidegger; Einfulung in die metaphysik. S.28

的 民族主義가 이데올로기의 分裂対立을 止揚 統一한 새로운 生活体制의 理念으로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知識社会学의 視座에서 브루조아 이데올로기인 自由民主主義의 哲学은 唯心論의 形而上学이고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인 共産主義의 哲学은 唯物論의 形而上学이며 그와같은 対立的 이데올로기를 超克 統一하려는 創造的 民族主義의 哲学은 創造的 生命의 哲学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内実的으로 말하여 브루조아 階級과 프롤레타리아 階級의 이데올로기적인 分裂対立을 民族의 創造的 生命의 顕現으로서 새로운 高次元의 生活体制를 創造함으로써 그와같은 対立的인 이데올로기体制를 揚棄하고 새로운 民族社会의 統一에 이루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対立에서 分断된 韓国의 南北統一은 韓国民族의 正気곧 正義의 生気가 分裂対立의 고랑에서 開示된 点을 契機로 하여 創造的으로 顕現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正義의 生気를 創造的으로 顕現시키는 活動이야 말로 統一課業 수행의 唯一한 実践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創造的으로 顕現하는 民族正義의 生気를 理論的으로 結晶시키고 具体化하는 作業이 創造的 民族主義의 理念밑에서 심수한 民族의 哲学体系를 자각하고 그와같은 哲学에 立脚하여 새로운 民族生活의 体制理論으로서의 科学理論을 研究하는 作業이다. 새로운 体制의 創造를 위한 科学理論은 종전의 브루조아 社会科学과 프롤레타리아 社会科学이란 이데올로기的인 科学의 旧殼을 벗어나서 全然 새로운 次元에서 体制理論을 科学的으로 研究하는 것이다. 브루조아 社会科学의 基本立場인 個人自由主義의 原理를 揚棄하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社会科学의 基本立場인 階級平等主義의 原理를 揚棄하고, 民族創造主義의 原理라고 하는 高次的인 立場에서 새로운 体制를 創

造하는 科学理論을 研究하는 것이다.

〈民族創造主義의 原理는〉 브루조아 階級과 프롤레타리아 階級의 矛盾対立을 그 뿌리부터 一掃하려는 이른바 新中間階層 主導의 民族社会의 건설을 志向하는 것이다. 이같은 民族社会의 基本的인 構造의 形成과 더불어 民族構成員의 個性을 極限에 이르기까지 発展해 간다면 個性과 個性은 無의 根源에서 実存的인 対立을 이룩하게 된다. 이와같이 無의 根源에서 実存的으로 対立한 個性과 個性의 飛躍的인 綜合統一은 새로운 創造를 낳는 것으로서 民族의 生命은 이에 그 質과 量에 있어서 비약적인 発展을 이룩하게 된다

이와같은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社会에 있어서 個性과 個性의 実存的 対立의 自由와 平等을 保障하는 理論이 〈社会面에〉 있어서는 完全한 社会保障下의 이른바 福祉社会의 理論으로 構想되고 또한 〈経済面에〉 있어서는 公共経済의 基幹위에서 個人의 自由平等한 経済的 競争이 보장되는 이른바 混合経済理論으로 발전하며 그러고 또 〈政治面에〉 있어서는 民族生命을 創造的으로 비약시키려는 이른바 創造的 民主主義 理論으로 전개된다. 만하임(Karl mannheim)은, 現代社会는 近代的인 自由放任의 社会에서 計劃된 社会에로 進展되고 있다는 것을 説明하고[12] 現代社会는 이른바 自由를 위한 計劃社会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論했다.[13] 그러나 自由를 위한 計劃社会라는 이데올로기적인 次元을 넘어서서 創造主義의 原理에 立脚하여 생각할 때 앞으로의 韓国社会는 그 南北統一을 위하여 創造를 위한 計劃社会로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科学理論에 따라 韓国의 社

註12) Karl Mannheim;Diagnosis of our time. P.1

註13) Karl Mannheim;Freedom.power.Democratic Planning P.29

会体制를 転換해 간다면 国力의 비약적인 培養이 이룩될 것으로 감안된다. 왜냐하면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計劃社会로 발전한다면 現代의 이데올로기体制의 구각안에서 萎縮枯死하고 있는 民族의 生気가 활발하게 伸張되고 蘇生하여 그것이 창조적으로 発現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現在 韓国은 資本主義体制의 旧殼안에서 経済的인 国力의 培養을 서둘고 있는데 과연 그같은 体制안에서 国民의 経済的인 에네르기가 100% 발휘되고 있는가 의문이며 또한 따라서 北韓의 이데올로기体制와의 競争에서 그것을 압도할 経済力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明白한 것은 아니다.

経済力 建設에서 勝共統一의 길을 트려는 한국이 만약에 資本主義体制下에서 건설하고 있는 経済力이 北韓의 이데올로기 体制의 経済建設을 圧倒할 自信이 없게 된다면 台湾, 越南등 아시아의 分断国家와의 政治的 局面과 더불어 韓国의 勝共統一의 길은 암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国은 그와같은 分断国家들과는 方向을 달리하여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超克의 勝共統一의 体制를 建設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같은 創造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새로운 経済体制의 建設은 그러한 統一을 위한다는 政治的意味 이외에 또한 経済的인 国力培養에 있어서도 現在의 体制보다 効率的이라는 것을 留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統一의 理念으로서 創造的 民族主義의 哲学과 科学의 理論을 그 대강에 있어서 論하였는데 그렇다면 그와같은 理論을 어떻게 実践에 옮겨서 統一을 成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現在 이데올로기 哲学에 입각하고 있는 南北韓 同胞의 精神을 바꾸는 이른바 精神革命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한 現在의 이데올로기体制를 揚棄하여 이데올로기를 超克한 高次元的인 새로운 体制를 建設하는 것이다.

韓国民族은 李氏朝鮮五百年의 事大主義精神에서 그 民族의 쇠잔을 가져 왔던 것이니, 事大主義精神은 向内的으로 民族生命의 활발한 生気를 위축시키면서 向外的으로는 旧韓国末의 歴史的인 事実에서 보다시피 周囲 強大国과의 관련에서 파벌과 分裂을 이르켜서 民族国家의 破滅을 가져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創造的 民主主義의 理念에 입각하여 그와같은 事大主義精神을 一掃하고 民族의 정신을 向内的인 団結과 統一의 方向으로 바꿈으로서 바로 지금 이데올로기的으로 向外化되어 있는 民族의 정신을 統一方向으로 転換할 뿐만 아니라 장차의 統一韓国이 또 다시 旧韓国 破滅의 前徹을 밟지 않도록 정신적인 主体性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韓国民族은 지금 南北韓을 通하여 対立的인 이데올로기의 哲学体系에서 그 信念体系가 굳어져 있는데 그와같은 個人主義 또는 階級主義의 信念体系를 創造的 民族主義 哲学의 理念体系로서 바꾸어 가는 精神革命의 作業을 遂行해 가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統一에 있어서의 가장 基礎的인 作業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은 民族의 精神革命의 作業과 더불어 生活体制의 転換作業을 遂行해야 하는데 現在의 이데올로기 体制를 創造的 民族主義의 哲学과 科学理論에 입각한 高次元의 새로운 生活体制로 전환하는 것이다. 南韓에 있어서의 그와같은 転換作業은 바로 統一作業의 強力한 実践으로서 北韓에 있어서의 그러한 体制 転換作業을 誘発하고 기다려서 韓半島 統一作業은 드디어 完了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高次元의 새로운 生活体制는 단순한 勝共統一의 体制일 뿐만 아니라 世界史에 先駆하는 未来志向의 体制로서 그와같은 体制建設에 成功한다면 民族의 번영과 中興을 가져 오는 民族的 土台가 확립되는 것이다.

創造的 民族主義에 입각한 精神革命과 体制転換은 이처럼 統一을

위한 作業일 뿐만 아니라 世界史에 先驅하는 民族中興의 土台를 구축하는 作業인 것이다. 地政学的으로 北韓보다 不利한 状況을 克服하고 勝共的으로 統一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은 오직 그와같은 創造的 民族主義에 입각한 새로운 体制를 創造的으로 確立하는 길 뿐이다. 왜냐하면 世界史의 潮流는 앞으로 対立的인 이데올로기 体制의 沒落을 촉구하고 그와같은 高次元 且 未来志向의 体制의 確立과 勝利에 가담하겠기 때문이다.

五. 結　　論

結　　論

(問題点 및 方向)

앞에서 보았듯이 民族主義를 統一理念으로 할 경우 그것이 가지는 諸特性 —自主性과 団結— 으로 인해서 그것은 自己指向的인 것이게 된다.

民族主義가 自己指向的인 性格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統一과 관련된 두가지 現象이 派生될수 있다. 하나는 그것이 国際主義나 帝国主義 또는 植民主義와의 闘争性을 가지며 그러한 闘争性向을 바탕으로 해서 統一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積極主義는 北韓의 경우에서 보다 많이 볼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他国과의 関係에서 비교적 温建하며 消極的인 性向을 보이는 것으로서 統一力量을 自体에서 찾는 것이다. 즉 闘争武器로서의 民族主義가 아니라 自体力量을 증대하여 그 힘을 기반으로 하려는 態度가 그것이다. 南韓은 바로 이 後者的 性向을 보이고 있다.

南韓에서는 民族主義가 民族的 正統性을 確立하고 統一基盤의 조성을 위한 힘의 内実化를 기하여 民族統合 및 統一을 지향하는 理念的 기틀로 주장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에 대해서 北韓의 경우는 美国이나 日本 및 国際聯合등의 南韓과의 関係断切을 고려하여 民族主義가 戦略的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南韓의 民族主義는 排他的이기 보다는 오히려 内部指向的인 것이라고 하겠고 北韓의 그것은 排他的 闘争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民族主義를 統一理念으로 할 경우에 問題가 되는 또하나는 南北韓에 그것에 대한 概念上의 差異가 있다는 点이다. 「스타린」에 의해서 規程된 民族의 概念은 「経済生話의 共通性」과 「文化的

共通性」을 강조하고 있다. 즉 經済生話에 共通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労動者 또는 資本家라는 階級的 性格과도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이 論理에 따르면 資本家階級이나 또는 北韓과 다른 経済生話을 하는 南韓住民은 同一民族이 될수 없다. 이러한 概念에 입각하여 民族主体에 의한 統一을 하려할 경우에는 階級闘争이 그 手段으로 활용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民族主義를 統一理念으로 定立하는데 있어 警戒하게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民族主義를 統一理念으로 내세울 경우에 부딛치는 또 다른 問題点은 그것이 지니는 純粋性에서 派生된다. 民族主義는 資本主義와도 또 社会主義와도 結合될수 있다. 그것은 어떤 政治的 이데오로기 와도 결합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民族主義는 無色의 理念이기 때문에 그것을 統一理念으로 내세울때는 統一意欲을 鼓吹시키는 効果를 거둘지는 모르나 指向하는 方向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問題点이 거기에 내포되는 것이다. 民族主義를 내세워 民族意識을 높이고 和解 또는 融合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統一成就의 理念으로 그것이 확립되려면 적어도 純粋性을 그대로 지킬수 있을때 可能하다. 民族主義가 自由主義的인 색채를 가지고 統一을 指向할 때는 社会主義的인 統一指向과 武力衝突을 일으킬 것이고 그 反対일 때도 또한 같다. 그러하기 때문에 民族主義가 民族主義로서의 純粋性을 지킬수 있을 것인가가 問題가 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民族主義를 統一의 理念으로 할 경우에 일어나는 問題点을 간추려 보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融合의 理念으로서는 民族主義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統一理念이 葛藤의 理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統一을 이루어 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統一의 可能性을 融合의 論理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民族主義에 의해서 具体化 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民族主義가 統一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적어도 앞에서 제시한 세가지 問題点이 해소되어야만 할 것이다.

第一의 問題인 民族主義를 「排外的」인 것에서 理解할 것인가의 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特定国家에 대한 闘争理論으로 民族主義를 利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民族主義를 「排他的 闘争手段」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政治的 이데오로기의 葛藤論理를 믿는 다는 것이 되며 葛藤論理에서는 融合이나 統合의 民族統一理念은 생겨날수 없기 때문이다. 「民族内部問題」 또는 「民族自決의 原則」이 南韓을 「美国의 強占地帯」로 보거나 中共을 民族의 敵으로 規定한다거나 할때는 闘争的 理念化하고 그것을 融合의 統一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해칠것이다. 따라서 「自主」 「自決」, 「民族団合」은 自体指向의 論理여야 하며 排他的 闘争論理여서는 않된다.

둘째의 問題인 民族概念의 相異性과 関聯하여 우리는 「民族史的 民族主義」를 主張点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経済生活의 共通性」등의 階級主義가 止揚되려면 「民族史」를 統一의 근거로 삼는 民族史観的 民族主義를 세워야 한다. 대체로 高麗의 建国에 의해서 韓半島의 住民은 스스로를 하나의 自己 同一性을 가진 民族으로 表象해 왔는바 이러한 民族的 一体感과 歴史過程을 歴史的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民族史的 民族主義」일 것이고 이것을 「統一의 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国史」에 대한 研究와 教育은 民族主体性을 확립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民族史的 民族主義의 正統性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에도 중요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民族史的 民族主義의 正統性은 歷史에 대한 이데오로기 적인 彩色을 할때는 확립될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의 問題点인 民族主義의 純粹性에서 생기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民族主義만을 統一理念으로 単一化할 것이 아니라 福祉社会와 自由社会의 理念을 修行追求할 수도 있을 것이다. 民族主義만을 내세우는 것은 表面上으로는 매우 그럴듯 하지만 어느面에서 보면 껍데기만의 主張일수 있다. 따라서 民族主義를 「解放鬪争」의 武器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알맹이를 갖는 統一理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全民族이 받아 들일수 있는 自由社会의 理念과 福祉社会의 概念을 거기에 導入시키지 않으면 안될지 모른다.

結局 統一을 위한 民族主義는 「排外的 鬪争性」이나 「階級性」을 갖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民族史的 民族主義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自由와 福祉의 理念을 包含할 수 있어야 한다.